

HUFS

Cover Story

박정운 한국외대
제12대 총장 취임식

Special Theme

새 시대, 새로운 리더가 꿈꾸는
New HUFS

HUFS Topic

2022학년도 한국외대
신입생 입학식

Inside HUFS

우리 학생들의 진로 탐구를 위한 여정,
HUFS H-UP 진로탐색학점제



세계와 바로 연결되는 대학, HUFS

뉴욕에서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17만 외대 동문의 글로벌 네트워크 파워와
글로벌 융복합 교육이 만나 더 높이, 더 멀리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미래형 인재를 키웁니다.

Come to HUFS, Meet the World



입학안내

02-2173-2500 / <https://adm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lobal HUFS 2022 SPRING Vol. 114

새 시대, 새로운 리더가 꿈꾸는 New HUFS

SPECIAL THEME

- | | | |
|----|------------------------|--|
| 02 | Cover Story | 박정운 한국외대 제12대 총장 취임식 |
| 04 | Special Theme | 새 시대, 새로운 리더가 꿈꾸는 NewHUFS |
| 06 | Theme Interview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 새 시대의 리더에게 바란다 박정운 한국외대 신임 총장 |
| 12 | HUFS Interview |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 라이센텍 97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유치 명희준 생명공학과 교수
도전하는 젊음 - 벤처기업 '데이터뱅크' 창업 송다훈 데이터뱅크 대표·영어12
우연히 만난 법학 - 제39회 법원 행시 합격 조은별 중국언어문화전공14 |
| 18 | Inside HUFS | 우리 학생들의 진로 탐구를 위한 여정, HUFS H-UP 진로탐색학점제
김민정 서울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 / 오세홍 글로벌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
오경현 HUFS H-UP 진로탐색학점제 1기·독일어통번역학19 |
| 22 | Global Memoirs | 동북아시아 최초로 거머쥔 우승 타이틀 - 전(全) 아시아 대학생 토론대회' EFL 리그 참가 후기
영어토론 동아리 HDS 윤석진 영어교육17 / 박영우 이탈리아어18 / 예르비사아리 미미카 국제통상19 |
| 24 | I am HUFSan | 제61회 전국대학 미식축구 선수권전 Challenge Bowl 우승
미식축구 동아리 블랙나이트 정재훈 러시아학15 / 김우주 브라질학19 / 홍진형 독일어21 |
| 26 | Global Issues | '한류 비자'가 필요한 이유 임대근 융합인재학부 교수 |

HUFS NEWS

- | | | |
|----|------------------------|---|
| 30 | HUFS Topics | 2022학년도 한국외대 신입생 입학식
한국외대, 제2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 전문교육기관 재지정 및 신규 5개 언어 추가 선정
나상원 LEENAX 대표, 학교 발전기금 5천만원 기탁
행정직원 직무수행 관련,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장 전달식 |
| 34 | HUFS Today | |
| 37 | HUFS Academies | |
| 41 | HUFS Professors | |
| 43 | NEW Professors | |
| 44 | HUFS Institutes | |
| 46 | HUFS Books | |
| 48 | CUFS News | |

ALUMNI & DONATION

- | | |
|----|----------------------|
| 50 | HUFS Alumni |
| 53 | HUFS Donation |

박정운 한국외대 제12대 총장 취임식

한국외대 제12대 총장 취임식이 지난 2월 22일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에서 개최됐다.

김봉철 행정지원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김중철 이사장의 신임 총장 임명장 수여 및 치사,

김인철 전 총장의 이임사, 박정운 신임 총장의 취임사, 양인집 총동문회장의 축사, 각계각층 인사의 영상축사 순으로 이뤄졌다.

한국외대 제12대 총장으로 취임한 박정운 신임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늘날 대학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 요구에 부응해 ‘변화와 혁신’이라는 제계 주어진 소임을 혼신의 힘을 다해 추진해,

한국외대를 국내 최고의 명문 사학으로 재도약하게 하고 세계적인 국제교육 허브 대학으로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캠퍼스별 특화 발전을 추진”하고,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 교육 시스템’과 ‘글로벌 전문가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제교육 허브 대학으로서 미래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고 세 가지 비전을 말했다.

박정운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22년 3월 1일부터 4년간이다.



한국외대(HUFS)는 1954년 개교 이래 지금까지 글로벌 프런티어로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세계화를 이끌었으며,
세계 99개국 894개 대학 및 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캠퍼스의 국제화를 실현하고 있다.
지난 3월 1일 한국외대 제12대 총장으로 취임한 박정운 신임 총장이
우리 대학을 세계적인 국제교육 허브 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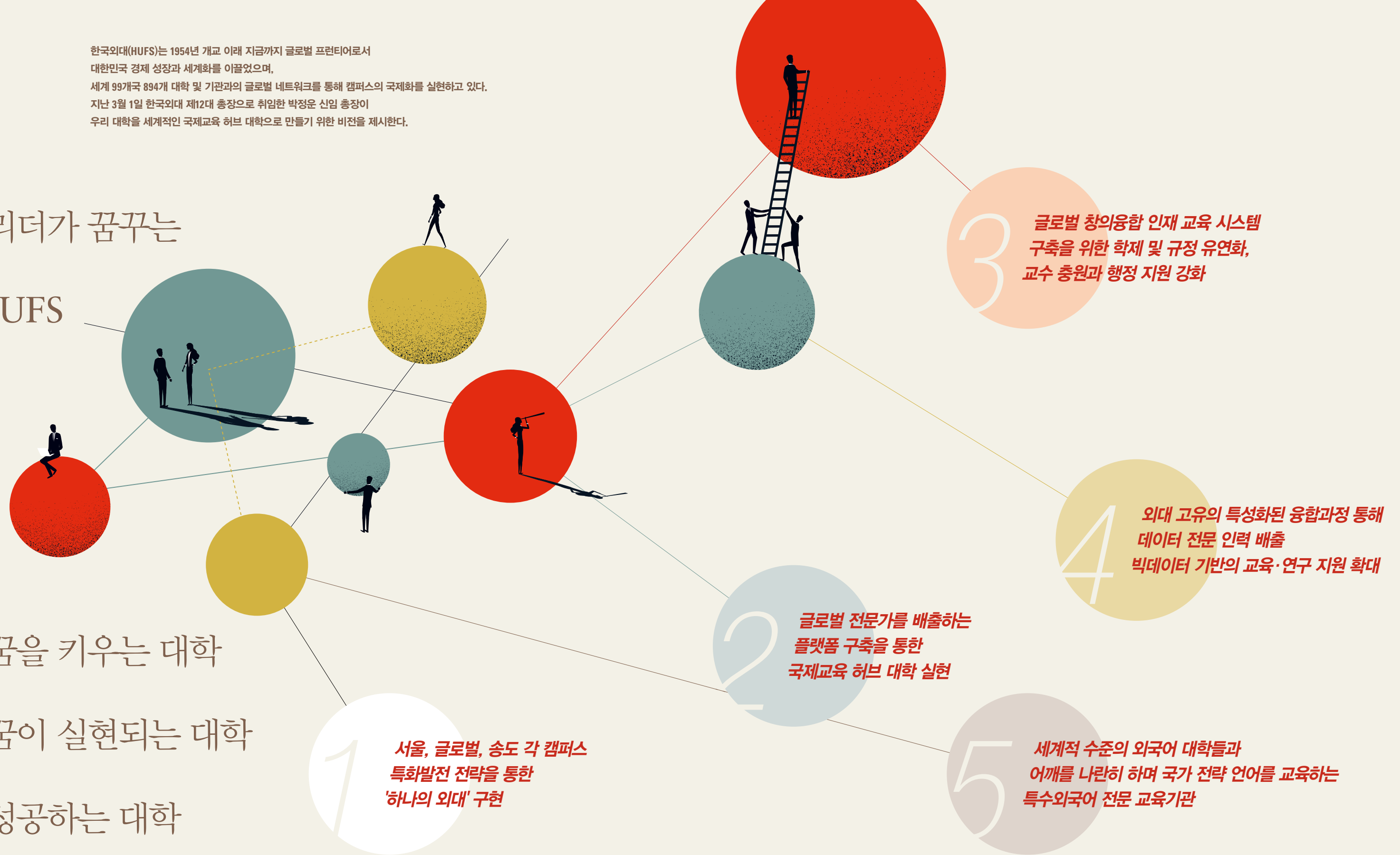
새 시대,
새로운 리더가 꿈꾸는

New HUFS

학생이 꿈을 키우는 대학

학생의 꿈이 실현되는 대학

학생이 성공하는 대학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

새 시대의 리더에게
바란다

박정운
한국외대 신임 총장

한국외대 제12대 총장으로 취임한 박정운 신임 총장.

그는 대학을 둘러싼 대내외 현실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대학을 이끌어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우리 대학의 새로운 리더, 박정운 신임 총장에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기대해본다.

대학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다

지난 2월 22일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에서 '한국외대 제12대 총장 취임식'이 진행됐다. 우리 대학의 새로운 리더가 된 박정운 신임 총장은 3월 1일부터 총장실로 출근하고 있다. 그에게 신임 총장이 된 소감을 물었다.

“모교의 총장이 된 것은 개인적으로 참으로 큰 영광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이 당면한 여러 현실, 그리고 학교 발전을 생각하면 어깨가 아주 무겁습니다. 학교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박정운 신임 총장은 총장 취임식에서 '대학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 요구에 부응해 변화와 혁신을 통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다른 무엇보다 변화와 혁신을 강조한 이유가 궁금했다.

“교육의 본질은 학생들로 하여금 꿈을 갖게 하고, 그 꿈을 구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4차 산업사회는 생각하는 방식과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모든 대학이 원격수업을 함으로써 공간에 기반한 기존 대학 시스템이 아니어도 대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대학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인문학, 특히 외국어 중심의 대학으로 기존 방식에 안주해 있으면 학생들이 꿈을 갖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학의 생존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와 산업의 변화에 부응해 선제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꾀해야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게 흔들림 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세 캠퍼스 특화발전 전략과 '하나의 외대'를 위한 개편

박정운 신임 총장은 우리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 향후 구축될 송도캠퍼스의 특화발전 전략이다.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는 지난 2014년 본·분교 통합을 통해 하나의 대학 아래 각기 다른 전공을 가진 이원화된 캠퍼스로 구축되어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유사 학과로 인해 여전히 본·분교 체제가 유지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어 학교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 수요를 고려한 대학 중장기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유사 학과의 구조조정을 통해 각 캠퍼스의 학문적 정체성과 독립성을 공고히 해 특화발전을 도모하고 명실상부한 '하나의 외대'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캠퍼스는 어문·사회과학 중심의 다국어 데이터 기반 외국학 대학으로, 글로벌캠퍼스는 IT·BT·CT 기반 실용학문 융합대학으로, 송도캠퍼스는 데이터 기반 첨단과학 대학으로 특화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한 캠퍼스별 특화발전은 외대의 오랜 과제로, 생존과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학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이 최적의 시기로 보입니다. 각 학과나 교수, 학생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학교 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구성원 모두가 이해하고 동참해 주리라 믿습니다.”

박정운 신임 총장은 우리 대학의 거버넌스와 행정체제도 하나의 외대에 부합하게 개편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대학은 거의 모든 것이 총장에게 집중돼 있는데, 이를 직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업무를 효율화하겠다는 것이다.

“총장은 변화와 혁신 주도, 미래 가치 창출, 재원 확보에 집중하고, 다른 모든 것은 직능 중심의 부총장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부분적으로 중복된 부처를 통합해 하나의 외대 구조에 적합한 단일 행정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미 교무위원 보임을 통해 거버넌스와 행정체계 혁신을 시작했고, 더욱 촘촘히 준비해 8월까지 완성할 것입니다.”

글로벌 전문가 플랫폼 & 창의융합 인재 교육 시스템 구축

더불어 박정은 신임 총장은 우리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글로벌 전문가 플랫폼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미네르바대학이나 에폴 42 등에서 볼 수 있듯, 전 세계 고등교육은 전통적인 대학 체계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대학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외대의 특성, 국제교육 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 국제교육 시장의 현황과 미래를 종합해 글로벌 전문가를 배출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외대를 세계 최고의 국제교육 허브 대학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외대에서 외국어와 Pre-Med 과정을 수학한 후, 전 세계 Medical School로 시스템에 의해 진학해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외대 학생이 물류가 세계적 수준인 네덜란드 대학원을 통해 글로벌 물류 전문가가 되고, 패션경영이 세계적 수준인 이탈리아 대학원을 통해 글로벌 패션경영 전문가가 되고,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영역 미국 대학원을 통해 글로벌 인공지능(AI)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전문가 플랫폼을 통해 학생이 발전하고 성공하는 대학이 되면 외대는 국내외 우수한 인재가 오고 싶은 대학이 될 것이고, 전 세계 국제교육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국제교육 허브 대학이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 교육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빼놓을 수 없다. 박정은 신임 총장이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미래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대는 건학 이념에서부터 외국어와 지역학 또는 외국어와 사회과학을 융합하는 융합 인재 교육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융합의 형식과 내용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LLT학과 같이 영어학과 언어공학이 결합한 단일 학과 내용 융합 교육, 융합인재대학 같은 단과대 차원의 모듈형 융합 교육, 이중전공 이수를 통한 융합 교육, 서로 다른 학문계열 복수의 전공이 만들어내는 융합 전공 제도, 학생이 창의적으로 설계하는 학습자 융합 전공 등 다양한 유형의 외대형 융합 교육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학문 영역과 AI 및 데이터 과학 등과의 새로운 융합 교육 체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외대와 세계 최고 대학원과 연계하는 글로벌 전문가 플랫폼 융합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학 발전을 가능하게 할 재원 확보 방안

대학 발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박정은 신임 총장은 지난해 개최된 총장 후보 선거 공개토론회에서도 ‘재정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재원이 확보돼야 대학 발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발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은 그것을 가능하게 할 재원 확보 없이는 꿈으로 끝날 가능성이 큼니다. 지난 13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돼 왔습니다. 물가 상승을 생각하면 등록금 동결은 실질적인 등록금 하락이기 때문에 모든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방안은 수익 사업,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산관학 협력, 발전기금 유치 등입니다.

앞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수익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수익 사업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혁신해 재원을 확보하려 합니다. 또한 ‘HUFS 1+3’, ‘복수학위’ 등 새로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을 추진하고, 기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도 더욱 효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만 전념하지 않고, 외국인 유학생이 잘 교육받을 수 있게 기초이수과정 등을 개발·운영해 장기적으로 외대를 외국인 유학생이 오고 싶어 하는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산관학 협력 또한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국책사업 지원팀을 만들어 국책사업 유치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산학연계부총장의 역할을 확대해 글로벌캠퍼스 주변 지자체와 관학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학생의 꿈이 자라고 실현되는 대학, 세계 최고의 국제교육 허브 대학, 사회와 산업 변화에 부응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박정은 신임 총장은 앞으로 부총장을 비롯한 교내 구성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대폭 이양하고, 총장으로서 발전기금 모금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대학에서 대외협력처장, 영어대학장, 평교수로서 했던 펀드레이징 경험과 한국외대 총동문회 사무총장과 한국외대 해외동문연합회 사무총장을 하며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펀드레이징을 극대화할 생각이다. 또한 학부형, 독지가, 기업인 등으로 모금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려 한다.

인터뷰 말미, 박정은 신임 총장에게 외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재단과 교수, 직원, 학생, 동문은 어떤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물었다.

“재단, 교수, 직원, 학생, 동문은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앞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학교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

U



HUFS INTERVIEW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명희준 생명공학과 교수

도전하는 젊음
송다훈 데이터뱅크 대표·영어12

우연히 만난 법학
조은별 중국언어문화전공14



F

S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라이센텍 97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유치
명희준 생명공학과 교수

우리 대학 바이오 벤처기업 '라이센텍'이
지난해 12월 97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를 완료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라이센텍을 이끌고 있는 생명공학과 명희준 교수에게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

● **라이센텍은 어떤 기업입니까?**

라이센텍은 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 전문 기업입니다.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세균에게는 병원균이지만 사람에게는 전혀 무해한 물질이죠. 라이센텍은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해 세균성 감염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기술에 바탕을 둔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2019년 한국외대 내에 설립했고, 지난해 10월 본사를 이전해 현재 판교 벤처밸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 **라이센텍이 시리즈A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바이오벤처는 단기간에 매출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A, B, C 단계의 투자 유치를 거치고 이후 상장(IPO)을 합니다. 라이센텍은 이 일련의 과정 중 첫 번째 투자를 유치한 셈입니다. 이번 시리즈A에는 기술성을 중시하는 테헤란로의 벤처투자자(Venture Capital)들이 참여했습니다. 라이센텍이 제시한 논문·특허 등 기술에 대한 평가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라이센텍의 기술력은 정부 과제 수행에서도 잘 증명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신약 개발 과제 3건을 수주해 45억여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 **현재 개발 중인 '엔도라이신' 파이프라인 2종과 '박테리오파지 콕테일' 등은 무엇입니까?**

라이센텍이 박테리오파지 자체를 항생제 신약으로 개발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인허가가 걸림돌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도 박테리오파지가 전임상-임상 시험을 거쳐 신약으로 승인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센텍은 엔도라이신을 신약 파이프라인 1호와 2호로 올려놓았습니다. 엔도라이신은 박테리오파지가 만들어내는 단백질 효소입니다. 숙주 세균에 침투한 박테리오파지가 증식을 마치면 세균 외부로 방출돼야 더 많은 다른 세균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균을 둘러싸고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하는 세포벽이 존재해 쉽사리 통로를 열지 않습니다. 이 세포벽 성분을 분해해 박테리오파지가 외부로 방출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엔도라이신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세균 사멸을 유도하는 항생제로 작용합니다. 라이센텍의 파이프라인에 있는 엔도라이신 2종은 신규성으로 인해 지적 재산권 확보가 가능했고, 그 효용성을 시험관과 동물 모델에서 증명했습니다. 이 두 엔도라이신의 타겟은 '그람 음성균'으로 분류되는 병원균입니다. '그람 양성균'과 세포막 구조가 달라서 일반적으로 효능을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라이센텍은 이런 한계를 극복한 후보 엔도라이신을 세계 최초로 전임상에 진입시켰습니다. 전임상은 2023년 3월에 완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 시험(IND)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염증성 장 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박테리오파지 콕테일(2종 이상의 다른 박테리오파지를 조합해 세균의 저항성을 억제)과 박테리오파지를 유전자 치료, 항암 치료 및 신규 백신의 전달체로 이용하는 플랫폼 기술을 좀더 긴 호흡의 파이프라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학교로부터 받은 지원은 무엇입니까? 또한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라이센텍 창업 단계에서부터 총장님과 연구산학협력단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교수로서 기업체 대표를 겸임하는 것을 허락받았고, 생명공학과 내의 실험실 공간 사용을 허가받아 라이센텍 본사로 법인 등록을 했습니다. 교내 규정에 따라 창업할 때 연구산학협력단에 라이센텍 주식의 일정 부분을 양도해 연구산학협력단도 라이센텍의 주요 주주입니다. 이는 학교가 창업 기업을 함께 육성한다는 의의이기도 합니다. 학교로서는 교원 창업에 대한 각종 제도를 계속 업데이트하며 보완하고 있습니다. 향후 좀더 활성화된 교원 창업을 기대하려면 교내에 기술지주회사를 신규 설립해 교원 창업을 독려하고 투자까지 병행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거듭나려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에 충실해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1차 목표가 돼야 합니다. 이후엔 될 수 있으면 대학원에 진학해 적어도 석사, 나아가서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권합니다. 실력을 갖춘 인재는 회사를 골라서 갈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대기업에 입사해 50대까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것을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망한 벤처에 들어가 스톡옵션을 받으면 금전적 보상도 상당하니까요. 한 기업에서 실력을 함양한 사람은 스카우트돼 다른 기업으로 옮겨가는 일도 흔합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이 창업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입니다. 공부(도전)는 대학·대학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해야 한다는 태도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모습이니까요.

● **앞으로의 목표나 꿈을 들려주세요.**

먼저, 기업가면서 동시에 학자로 양립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라이센텍 설립 이후에도 제 소속을 '한국외대'와 '라이센텍'으로 병기하며 발표한 논문이 많습니다. 일의 성격상 기초 연구와 응용 개발이 혼재하는 경우가 흔하니까요. 라이센텍 입장에서 보면 전임상, 임상, 라이선싱 아웃, 기업 공개 또는 인수합병(M&A) 등 달성할 마일스톤이 다양합니다. 저와 임직원이 모두 잘 해내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라이센텍이 개발한 신약이 인류의 건강 증진에 진정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를 학자로 키워준 한국외대에도 라이센텍을 통해 보답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외대 동문인 벤처기업 '데이터뱅크'의 송다훈 대표.
 지난 2019년에 창업한 그는 스타트업 등용문으로 유명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창업 투자 프로그램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로 선정된 것은 물론이고,
 창업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시리즈A로 기관 투자를 유치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도전하는 젊음

벤처기업 '데이터뱅크' 창업
 송다훈 데이터뱅크 대표·영어12



● 현재 이끌고 있는 데이터뱅크는 어떤 기업입니까?
 데이터뱅크는 '기술로 교육 격차를 줄인다'는 미션을 가진 에듀테크 회사입니다. 2019년 창업했으며, 대표적인 서비스는 '테스트 글라이더(Test Glider)'입니다. 테스트 글라이더는 토플 학습 플랫폼인데, 모든 영역을 실시간으로 채점해 주는 전 세계 유일의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1대1 교역 과외를 통해서만 학습할 수 있었던 분야를 인공지능(AI)을 접목해서 모두가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더 높은 학습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합니다.

● 지난해 4월 시리즈A 투자 유치를 완료해 30억원을 확보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리즈A 투자는 첫 기관 투자로, 그다음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시리즈A 투자를 빠르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데이터뱅크를 창업하기 전인 2016년, '산타토익'을 서비스한 에듀테크 회사 '뤼이드'에 콘텐츠 총괄로 있으면서 남들보다 빠르게 에듀테크 산업의 가능성을 포착했기 때문이라 봅니다. 시리즈A 유치는 금액뿐 아니라 어떤 투자사가 들어왔는지도 중요합니다. 데이터뱅크에 투자한 투자사는 국내 탑티어 그룹의 벤처 캐피털사인 KB인베스트먼트와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인터베스트입니다. 이런 탑티어 그룹의 벤처 캐피털사가 투자했다는 것은 저희 기술력이나 사업 모델, 가능성이 객관적인 시장에서 검증받았음을 뜻합니다.

● 출시 예정이거나 개발 중인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데이터뱅크는 첫 서비스로 토플 학습 서비스를 론칭했고, 최근 두 번째 서비스로 아이엘츠 학습 서비스를 론칭했습니다. 앞으로 2024년까지 토플, 아이엘츠, SAT, ACT, GRE, 토익 스피킹, 오픽 7개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지난달부터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도 저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안으로 300여 개의 학교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동 채점기에 이은 자동 첨삭기도 개발 중입니다. 2년 후에는 저희 주 고객이 각국의 교육부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간의 인터넷 상거래인 B2G 서비스를 도입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교육 산업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한번 1등을 한 기업이 보통 30년을 1등할 정도죠. 에듀테크 시장 및 AI 교육 시장은 지금 개화기입니다. 지금 누가 1, 2등을 하느냐가 앞으로 30년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글로벌 성인 영어 시장의 주관식 부분 1등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서비스 사용자의 90% 이상이 해외 유저로, 전 세계 210여 개국에서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글로벌 1등을 목표로 계속해서 달려나갈 것입니다.

● 선배로서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힘이 되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단군 이래 창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시대입니다. 연대 보증을 안 서도 되고, 투자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시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 싶다'라고 한다면 창업해 보세요. 처음부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고 싶은 열정이 중요하거든요. 창업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각오하고 하면 됩니다.

● 창업과 관련해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가 외대 2학년생이던 시절 학과 사무실에서 신입 총장님이 되신 박정운 교수님께서 '뭐 하고 싶냐'라고 물으셔서 '키움증권 인턴 시켜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니즈를 확실히 하는 건 학생 뉘이지만,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건 학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창업 현장은 무척 빠르게 돌아가므로 현재 창업 현장의 플레이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창업과 관련해 학교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는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 대신 창업한 학생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세요. 창업하려는 학생에게는 창업 현장에서 나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높은 사람의 조언이 무엇보다 필요하니까요.

● 개인적인 목표나 바람이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양궁이나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하면 당연히 글로벌 1등입니다. 저는 교육도 그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듀테크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1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중국, 인도에서 1조 이상의 에듀테크 회사들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에듀테크 회사들이 똑똑한 솔루션을 개발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교육 시장에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회사의 솔루션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교육 시장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로벌 교육 시장에서 '영어 교육은 데이터뱅크라는 수식어를 만드는 게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우연히 만난 법학

제39회 법원 행시 합격
조은별 중국언어문화전공14



제39회 법원 행시에서 최연소로 합격한 우리 대학 조은별 동문.
중국언어문화를 전공한 법학 비전공자라는 점이 더욱 눈길을 끈다.
그가 법원 행시에 도전하게 된 계기와 수험 생활 과정, 합격 노하우를 들려주었다.

- 법원 행시의 '최연소 합격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합격자 확인을 했을 때 더 이상 수험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나중에 최연소 합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제가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기에 놀랐습니다. 저는 현재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15주간 진행되는 5급 신규 임용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직무 교육과 인성 교육을 비롯해 초급 관리자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배우는 중입니다. 교육이 끝나고 일선 법원에 발령받게 되면 재판 절차의 진행을 돕는 참여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법원행정처로 발령받게 되면 사법 정책이나 기타 행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 중국언어문화를 전공한 법학 비전공자라는 점이 눈길을 끄니다. 법원 행시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대학교 4학년 때 수강한 법학 교양 수업에서 처음으로 법학을 접했습니다.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강의하는 형사소송법과 형법, 민법 수업을 듣고, 법학이라는 학문에 매력을 느꼈죠. 관련 직업을 갖고 싶어서 'Pre-Law School 고시반(당시 '의향제')'에 입실했고, 고시반 실장님을 통해 법원 행시라는 시험을 알게 됐습니다. 행정부에서 진행하는 5급 공채시험과 달리, 법원 행시는 PSAT을 보지 않고 1차와 2차 모두 법과목만 봅니다. 당시 법학에 큰 흥미를 느끼고 있었던 것도 법원 행시에 도전하게 된 원인입니다.

- 수험 기간 동안 자기 관리는 어떻게 했으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수험 생활은 규칙적인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저는 성실한 편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초시 때와 재시 때를 보면 이틀 정도는 14시간씩 공부하다 그 다음날은 1시간도 채 공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삼시 때는 매일매일 적게 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공부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7~12시간 정도 공부했고, 수면 시간은 최소 6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수험 생활은 불안의 연속인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비슷한 양을 공부하는 것이 불안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수험 생활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지식은 시간과 비례해 당연히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삼시 때는 2년 넘게 공부했는데 여전히 모르는 문제투성이면 '내가 붙을 수 있는 시험인가?'라는 생각에 힘들었습니다. 제가 재시 때 2차 시험에서 평균 3점 차이로 떨어졌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3점씩만 더 받으면 된다고 되뇌며 자신감을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오만함은 경계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법원 행시 합격 비결은 무엇이며, 특별히 고마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법원 행시를 공부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부분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강약 조절이었습니다.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2달 후 2차 시험을 보기 때문에 1차와 2차 공부의 강약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시 때는 2차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1차를 소홀히 해 1차 관문을 넘지 못했고, 재시 때는 1차가 너무 두려워 2차를 준비하지 못해 2차 관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삼시 때부터는 1차를 준비하면서도 2차 공부를 끝까지 놓지 않았는데, 이것이 합격에 일조한 것 같습니다.

가장 고마운 사람은 가족들입니다. 원래 공부하는 사람보다 주위 사람이 더 힘든 법인데, 가족들이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저를 응원하면서도 많은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또 한국외대 고시반 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실장님이 아니었다면 법원 행시를 준비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3차 면접 전에 제가 긴장할까 봐 먼저 연락도 못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수험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마음 써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시험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힘이 되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험이나 취업 모두 합격의 난이를 떠나 불확실성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바꿀 수 없는 미래를 보며 불안해하기보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격 후 느낀 점 중 하나는 합격이나 취직이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의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공부가 안 되는 날에는 '이런 날도 있고 그런 거지 뭐' 하고 가볍게 넘기면 좋겠습니다.

- 앞으로의 목표를 들려주세요.

법원공무원교육원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겸손'인 것 같습니다. 합격 전 간절했던 마음을 잊지 않고, 책임감과 전문성 있는 법원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또 앞에서 제가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수험 기간 동안 저는 '합격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소홀히 대했습니다. 이제는 신체적으로나 심적으로 저를 좀더 돌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진로 탐구를 위한 여정, HUFS H-UP 진로탐색학점제

한국외대가 교육부의 지원 아래 진행하고 있는

‘HUFS H-UP(High up, Happy up, HUFSan up, HUFS up) 진로탐색학점제’가 눈길을 끈다.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진로 탐색 활동인데,

우리 학생들의 진로 탐구를 위한 여정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김민정 서울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과 오세홍 글로벌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

오경현 HUFS H-UP 진로탐색학점제 1기 참여 학생이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진로 탐색 활동

HUFS H-UP 진로탐색학점제는 교육부의 지원 아래 우리 대학 진로취업지원센터에서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생 자기주도형 학습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홍 글로벌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이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HUFS H-UP 진로탐색학점제는 진로와 관련해 고민이 있는 학생 스스로 본인의 진로 탐색을 위한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합니다. 이후 15주 동안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학습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결과까지 도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길을 잃을 수 있으므로 지도 교수님들이 멘토로서 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합니다. 또한 취업지원관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진로를 좀더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진로 탐색을 하는 데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하고, 그 외에 필요한 것을 지원합니다.”

우리 대학 HUFS H-UP 진로탐색학점제의 목표는 저학년 학생들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좀더 능동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다양한 성장 경로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1, 2기 학생들이 참여해 진로 탐색 기회를 가졌다. 최근 선정한 3기 학생들부터는 개인뿐 아니라 팀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선정 결과 3기는 개인 14명과 팀 6팀, 모두 33명의 학생이 한 학기 동안 진로 탐색 활동을 할 예정이다.

김민정 서울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

오세홍 글로벌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

오경현 HUFS H-UP 진로탐색학점제 1기·독일어통번역학19

멘토 교수, 진로취업지원센터의 도움 필요

다른 대학 진로 탐색 프로그램과 다른 우리 대학 진로탐색학점제의 특징은 무엇일까. 김민정 서울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은 ‘H-UP(High up, Happy up, HUFSan up, HUFS up)’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우리 대학의 H-UP은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관심을 갖고 하고 싶은 활동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는 ‘Happy up’, 관심 주제의 연구 활동을 통해 꿈과 희망과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High up’, 이를 통해 외대인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HUFSan up’,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외대가 발전하는 ‘HUFS up’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대학 또는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별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HUFS H-UP 진로탐색학점제는 단순히 진로 탐색 활동을 교육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천하는 진로 탐색 과정에서 도전 정신과 성취감, 만족감, 행복감 등을 통해 인재로 거듭날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HUFS H-UP 진로탐색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받는다. 지난해 1학기에 HUFS H-UP 진로탐색학점제 1기 학생으로 참여한 오경현 학생이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들려주었다.

“저는 평소 대학은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학문을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UFS H-UP 진로탐색학점제 1기 학생으로 참여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으로 학생들이 이중전공이나 교양 등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원하는 방향의 공부를 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HUFS H-UP 진로탐색학점제를 통해 진짜 원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 아무래도 학생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멘토이신 담당 교수님이나 진로취업지원센터 선생님들이 지원해주거나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은 진로탐색학점제를 위한 개선사항 5가지

우리 대학 학생·인재개발처가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무엇일까. 김민정 처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학생들이 본인이 하고 싶고 꿈꿔온 일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HUFS H-UP 진로탐색학점제를 포함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HUFS H-UP 진로탐색학점제는 개선사항 5가지를 반영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주었다.

“첫 번째, 2022학년도 HUFS H-UP 진로탐색학점제부터 학생 개인 지원에서 팀 지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좀더 다양하게 소통·협력함으로써 꿈을 함께 이뤄나가는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H-UP 선후배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1, 2기에 참여한 학생들을 포함해서 현재 진행 중인 3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멘토링을 지원해 선후배 간의 유대감과 동질감을 연대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 ‘듀얼 지도교수제’를 도입하려 합니다. HUFS H-UP 진로탐색학점제는 교수님들의 지도가 매우 중요한데, 앞서 오경현 학생이 말한 것처럼 교수님들과의 만남이나 지도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HUFS H-UP 진로탐색학점제는 단순히 진로 탐색 활동을 교육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천하는 진로 탐색 과정에서 도전 정신과 성취감, 만족감, 행복감 등을 통해 인재로 거듭날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민정 서울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



“취업 시장에서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도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일찍부터 본인의 진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오세홍 글로벌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

에 멘토링을 해주는 지도교수뿐만 아니라 진로 설계와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커리어 담당 주임교수를 같이 배정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학교 내부가 아닌 외부 전문 멘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로 탐구와 관련해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이 매우 다양한 만큼, 좀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외부 전문 멘토의 도움을 받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로취업지원센터에서 진로 설정 프로그램이나 동문 선배 특강, 현직자 특강 같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외대생의 진로 명품 프로그램이 되게 할 것

앞으로 HUFS H-UP 진로탐색학점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궁금했다. 김민정 처장은 ‘올해는 교육부의 지원 없이도 지속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환하는 준비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의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 사업은 최대 3년입니다. 우리 대학은 1년 차인 지난해에 진로탐색학점제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2년 차인 올해에는 HUFS H-UP 진로탐색학점제가 교육부의 지원 없이도 지속적으로 자생할 수 있게 시스템을 전환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진로탐색학점제에 참여한 학생이 연계해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내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로 탐색과 관련한 시너지를 내고자 합니다. 아울러 성과 결과 발표를 통해 참여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내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런 여러 가치를 통해 HUFS H-UP 진로탐색학점제가 우리 대학 학생들의 성공을 위한 대표적인 ‘진로 명품 프로그램’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오세홍 처장은 진로 탐색을 하는 주체인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취업 시장에서 상시 채용이나 수시 채용이 많이 이뤄지면서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도전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의 인턴십 기회가 있어 학생들에게 ‘한번 지원해 보면 어떨겠니?’ 하고 물으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라며 겁내고 망설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럴 때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일찍부터 본인의 진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학교와 교수, 직원, 동문에게 전하는 말도 잊지 않았다.

“지금은 예전처럼 학교에서 공부만 잘하면 자연스럽게 취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와 교수님, 직원 선생님들은 취업의 트렌드가 변화된 부분을 받아들이고, 학생들의 일이나 프로젝트 경험을 쌓아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직자인 동문 선배님들은 애교심과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배들의 멘토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학교 프로그램에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끝으로 우리 학생들의 진로 탐구를 위한 여정을 함께하는 포부를 물었다.

“HUFS H-UP 진로탐색학점제는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최근 12대 총장으로 취임하신 박정은 총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학생 성공’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발전하고 성공하는 한국외대,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는 한국외대가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정 처장의 말에 이어 오세홍 처장도 마음가짐을 밝혔다.

“솔직히 학생·인재개발처장으로서 아직 능력과 경험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진로 탐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소통하는 등 학생들에게 좀더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학교와 총장님께 전달하는 민원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할 생각입니다.”

오경현 학생은 HUFS H-UP 진로탐색학점제를 경험한 학생으로서 아직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시행해도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무용지물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HUFS H-UP 진로탐색학점제의 경우 학생 스스로 진로 탐색 활동 계획을 짜고 담당 교수님에게 연락하는 등 번거로움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를 망설이고 있다면 꼭 참여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시행해도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HUFS H-UP 진로탐색학점제 참여를 망설이고 있다면
주저말고 꼭 참여하세요.”

오경현 HUFS H-UP 진로탐색학점제 1기 학생

동북아시아 최초로 거머쥔 우승 타이틀

영어로론 동아리 HDS

윤석진 영어교육17

박영우 이탈리아어18

예르비사아리 미이카

(Miika Järvisaari) 국제통상19

한국외대 중앙 영어 토론 동아리 'HDS(HUFS Debate Society)'가 지난해 10월 9~10일 개최된

'전(全) 아시아 대학생 토론대회(United Asia Debating Championship·UADC)'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외국어로서의 영어) 리그에서 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두었다.

HDS 소속 윤석진·박영우·예르비사아리 미이카 학생이 대회 참가 후기를 전한다.



비슷한 열정을 가진 팀원들이 모여 도전

UADC는 2010년 시작돼 해마다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시아 의회식 토론 대회다. 아시아 의회식 토론이란 주제가 주어진 이후 30분 안에 토론 라운드가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올해 대회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우리 학교에서는 중앙 영어 토론 동아리 HDS의 윤석진·박영우·예르비사아리 미이카 학생이 팀을 이뤄 참가했다. HDS는 전국 대학생 영어토론 총연합(Korea Intersarsity Debate Association)에 소속돼 있는 동아리이기도 하다. 윤석진·박영우·예르비사아리 미이카 학생은 8경기로 구성된 예선전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EFL 리그 본선에 올라갔으며, 결승전에서 베이징대학 대표팀을 만나 10:1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HDS의 이번 대회 우승은 대회 창설 이후 처음으로 동북아시아 팀이 EFL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이라 더욱 의미 있다.

이번 토론 대회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궁금했다. 윤석진 학생은 ‘세계 대학생 토론대회(World Universities Debating Championship·WUDC)’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것이 큰 몫을 했다고 한다.

“저는 항상 메이저 대회(UADC를 포함해 특정 지역을 단위로 한 큰 규모의 대회)에 나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할까 봐 두려웠고, 학기 중에 진행되는 대회가 보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여름 방학에 WDUC 심사위원으로 참가해서 본선 진출을 한 이후 자신감이 생겼고, 한번 도전해보자는 마음이 들어 지원했습니다.”

박영우 학생은 전국 대학생 영어토론 총연합의 회장으로서 아시아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토론 대회를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고, 마침 비슷한 열정을 가진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회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승에 이르기까지 힘들고 또 즐거운 순간

이번 대회는 전 세계 23개국 86개 대학에서 400여 명의 대학생이 심판과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우승하기까지 힘든 순간도 있었다.

“의회식 토론은 주제를 공개한 이후 준비 시간이 30분 밖에 없고, 그동안 원칙적으로 인터넷 검색이 금지이기 때문에 순전히 배경 지식을 갖고 토론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려운 주제가 나오면 당황하기도 하죠. UADC 같이 아시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에서는 토론 주제로 특정 지역의 정치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번 UADC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인도 정부에 이익을 줄 것이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주제가 나올지 모르므로 대회에 앞서 최신 뉴스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좀 힘들었습니다.”

박영우 학생의 말이다. 예르비사아리 미이카 학생은 이번 대회 과정에서 ‘패배를 겪고 기대치를 조정한 것이 큰 도전’이었다고 말했다.

“저는 스스로 현실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언제나 큰 꿈을 꾸는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렇기에 제 예상대로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크게 실망하고 환상이 깨지기도 하죠. UADC에 참가하면서 제일 도전적이었던 부분은 승리를 예측했던 라운드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겪은 후 저만의 기대치를 조정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오픈 리그 예선전에 꼭 진출하고 싶었는데 결정적인 라운드에서 패배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높은 기대치에 대한 엄청난 압박감이 더 이상 저를 에워싸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EFL 예선 라운드에서는 자산이 됐습니다.”

윤석진 학생은 몇 라운드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받은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또한 굉장히 즐거운 토론을 한 경험도 있다고 했다.

“UADC의 경우 첫째 주에 총 여덟 라운드의 예선을 거쳐야 했는데, 초반엔 괜찮았지만 몇 라운드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받아 지쳐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선 마지막 토론 ‘당신의 자녀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지만 성인이 된 후 당신을 버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녀를 갖겠다’라는 주제였는데, 이 토론을 하며 힘들었던 이전 라운드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선견, 피할 수 없는 것을 수용하는 것, 자녀를 갖는 것 등 평소 생각해보지 않았던 영역에 관해 토론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함께해서 더욱 의미 있는 대학 시절의 추억

이번 대회는 세 학생 모두에게 의미가 남다르다. 대회에 참가하면서 다양한 이슈를 공부하게 된 것은 기본이고, 동료애와 남을 존중하는 마음, 자신감이 커졌다. 훗날 떠올리며 미소 지을 수 있는 대학 시절의 추억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은 덤이다.



“이번 대회는 즉흥적이고 미리 준비하지 않는 토론이기 때문에 대회가 시작하기 직전에 다양한 이슈에 대한 사실과 정보를 공부하게 됩니다. 팀의 첫 번째 발표자로서 팀원들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토론을 구성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준비 시간 중 팀원들을 경청해 발표에 필요한 주요 논점을 정리하고, 상대방 주장에 바로 응답하거나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회 종료 후 토론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압박으로 지쳤지만, 팀원 간의 동료애를 느끼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공유할 수 있어 고마웠습니다.”

예르비사아리 미이카 학생의 말이다. 윤석진 학생 역시 팀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팀원들을 더욱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2년 동안 활동을 같이해 친한 사이였지만, 대회 진행 중 제가 우울해질 때도 항상 저를 격려해주는 팀원들이었습니다. 향후 함께 돌아보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추억이 된 것 같아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박영우 학생은 이번 대회가 자신 안의 두려움을 깨고 자신감을 얻는 기회였다고 털어놓았다.

“저는 그동안 주로 한국에서 열리는 토론 대회에 참가해서 해외 대회를 나가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대회를 계기로 그런 두려움을 깰 수 있었습니다. UADC는 아시아에서 열리는 가장 크고 명망 높은 대회이므로 본선에만 진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EFL 우승이라는 성적을 거두고 나니 앞으로 스스로 더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외대 미식축구 동아리 ‘블랙나이트(Black Knights)’가 지난 1월 23일 경일대학교에서 열린 ‘제61회 전국대학 미식축구 선수권전 Challenge Bowl(챌린지볼)’에서 우승을 차지해 화제를 모았다. 창단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하며 전국대학 왕좌에 오른 블랙나이트 선수들을 만났다.

제61회 전국대학 미식축구 선수권전 Challenge Bowl 우승

미식축구 동아리 블랙나이트

정재훈 러시아학15

김우주 브라질학19

홍진형 독일어21

선배, 감독, 코치의
오랜 바람을 이룬 순간

전국대회 우승,
말로 표현 못 할 만큼 행복

블랙나이트는 30년 전인 1992년에 창단된 우리 대학 미식축구 동아리로, ‘전국대회 우승’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재미있게 운동하고 교제한다. 현재 대한미식축구협회 소속으로 서울 1부 리그에서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며 활동한다.

블랙나이트 선수들은 지난 1월 23일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경일대학교에서 개최된 ‘제61회 전국대학 미식축구 선수권전 챌린지볼’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기 때문이다. 블랙나이트 정재훈·김우주·홍진형 학생은 선수, 매니저, 코치진까지 온 팀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회상하며, 우승 트로피를 들었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 못 할 만큼 행복했다고 전했다.

“사실 우리 대학 미식축구부는 오랜 역사를 가진 서울리그의 강팀들보다 역사가 짧고 인프라가 다소 부족했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19 위기로 대학미식축구리그가 취소됐는데, 이로 인해 다른 팀들이 하나둘씩 활동을 멈췄습니다. 저희는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를 대회를 대비해 상황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해 활동했습니다.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한 인원이 나오는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고 자신의 몫을 다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왔기에 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블랙나이트의 이번 전국대회 우승은 창단 30여 년 만에 거둔 첫 우승이기 에 의미가 남다르다. 현재 팀에 소속된 학생들 외에 그동안 팀을 거쳐 간 선배들까지 모두 값진 성과라고 입을 모은다.

“블랙나이트가 그동안 서울리그 우승 경험은 두 차례 있었지만, 전국대회 우승은 동아리 창단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모두가 간절히 원했던 목표를 이룰 수 있어 기뻛고, 전국대회 우승이라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선수 개개인이 갖고 가는 것 같아 무척 뜻깊습니다. 블랙나이트 선배님이자 감독, 코치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오랜 바람을 대신 이뤄드릴 수 있어 더욱 값진 우승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랙나이트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치르는 동안 여러모로 도움을 준 학교와 담당 교수님, 동아리연합회에 감사의 말을 남겼다.

“2021년도 리그 직전에 동아리연합회에서 운동장 이용과 관련해 신경 써준 덕분에 리그 준비를 순탄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 준비 기간에 담당 교수님인 김봉철 교수님께서 여러 번 오셔서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신 점도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 팀이 우승하자마자 학교에서 정문에 플래카드를 달아줬는데, 그때 무한한 감동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즌 동안 학교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우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거 같습니다.”

운동장 폐쇄로 공터에서
4인씩 운동 진행

전국대회 훈련 기간부터 대회를 치르고 우승하기까지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많다. 정재훈 학생은 코로나19로 연습할 운동장이 모두 폐쇄돼 힘들었다고 입을 열었다.

“제가 2020년도 2학기에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주장을 맡았습니다. 신입생을 교육해야 하는데 교내 운동장은 물론 시립 운동장과 사립 운동장도 모두 폐쇄돼 어쩔 수 없이 공터에서 4인씩조를 나눠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가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평소 못했던 필드 운동을 하기 위해 운동장을 대관하려 밤새며 운동장을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김우주 학생은 경성대와의 챌린지볼 1차전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했다. “경성대와의 챌린지볼 1차전에서 생애 첫 터치다운을 한 순간

이 특히 기억납니다. 입대 후 2년 만에 복귀한 경기라 긴장도 되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팀의 승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또한 경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옆에서 힘을 넣어주고 같이 땀 흘려 고생해준 동료 선수들에게 무척 고마웠습니다.”

홍진형 학생은 블랙나이트 고학번 선배를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 선배님은 시즌이 한창일 때 훈련이 끝나면 저희 집에 오셔서 밤새 상대 팀 경기 영상을 분석할 정도로 우승을 간절히 원하던 분이었습니다. 결승전이 끝나자마자 다 같이 벤치로 뛰어 들어가 서로를 부둥켜안고 자축할 때 그 선배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평소처럼 장난을 치려 했으나, 순간적으로 몸이 굳고 눈물만 나와 선배님 품에 안겨 평평 울었습니다.”

블랙나이트의 앞으로의 목표와 활동 계획은 무엇일까. 모든 스포츠 선수들이 그렇듯 블랙나이트 역시 불변의 목표는 전국대회 우승이 아닐까 싶다.

“블랙나이트의 바뀌지 않는 목표는 서울리그와 전국대회 우승입니다. 늘 그래왔듯 꾸준히 연습하고 실력을 쌓아갈 것입니다. 이번 챌린지볼 우승을 기점으로 서울리그 부동의 강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주 3회 미식축구 훈련을 하고, 동아리 선배들과 OBYB 친선 경기를 할 것입니다. 다른 학교와의 스크리미지와 여름방학 합숙캠프, 서울대학 미식축구선수권 추계리그 참가 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블랙나이트 팀원으로서가 아닌 개인적인 활동 계획과 꿈을 물었다. 정재훈 학생은 “어떤 일을 하든 의지와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김우주 학생은 “지금 당장의 꿈은 전국대회 우승”이라고 강조하면

서 “졸업 후엔 미식축구를 통해 얻은 밝은 에너지와 패기를 갖고 세계로 나가 꿈을 펼치는 전문 무역인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홍진형 학생은 개인적인 활동 계획과 꿈 역시 우승이라고 말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이 다시 한번 피, 땀,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자신 있으며, 올해도 내년에도 쉬지 않고 땀 흘리며 우리의 꿈을 이룰 것”이라고 다짐하듯 말했다.

인터뷰 말미, 정재훈·김우주·홍진형 학생은 학교에 작은 바람이 있다고 속내를 비쳤다. 학교 체육 교양 강의에 해외 대학들처럼 미식축구 과목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기존 교양 강의를 보면 대부분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 과목이 많습니다. 미식축구 교양 강의가 생긴다면 학생들은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미식축구의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미식축구를 통해 얻은
에너지와 패기 갖고 꿈 펼칠 것

‘한류 비자’가 필요한 이유



임대근
융합인재학부 교수

상상력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재기한 한류의 위력

한류의 위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작년 우리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대명사가 됐다. 골든글로브와 미국 배우조합상을 수상하는 등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D.P.〉,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의 넷플릭스 드라마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드라마 한류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흐름은 가깝게는 〈기생충〉을 비롯한 우리 영화의 세계적인 성공, 즉 한국적 스토리텔링의 세계화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BTS를 비롯한 K팝의 성공은 한국적 정서가 세계 시민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이야기를 잘 만들고, 즐거운 놀이를 창조하는 나라가 됐다.

한류의 흐름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소 주춤했던 한류는 상상력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재기했다. 뒤이어진 중국의 ‘한한령’ 등 장애물도 거뜰히 넘어서면서 전에 없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류는 우리의 문화적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세계에 진출했고,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도 창출하고 있다.

한류 비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한류

올해 초 한류 비자를 신설하겠다는 법무부의 계획이 전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문화 인재 유치’를 위해 한류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에게 1~2년 단기 체류 비자를 발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국내 대학에 입학하거나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야만 받을 수 있던 체류 허가를 사실 교육기관에 등록만해도 가능하도록 바꾸겠다고 한다.

한류 비자는 한류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생각을 뒤집는 정책이다. 한류의 본원으로 외국인을 불러들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한류’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소식이 발표되자 일부에서는 이는 중국인을 겨냥한 정책이며, 안그래도 중국과 빈번한 문화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의 소재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사실 한류 비자가 이번에 처음 나온 정책은 아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6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패션, 미용, 문화 체험 등 한류 콘텐츠와 관광이 결합된 한류 비자를 신설’해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해 관련 산업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그해 사드(THAAD) 배치로 인해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한류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기회 되기를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류 비자는 긍정적인 기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류를 지나치게 민족주의적 현상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벗어날 수 있다. 또한 한류의 수출 효과만을 강조하는 입장도 바뀌볼 수 있다.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낼 한류 비자의 의미와 효과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 교류의 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다. 이번 한류 비자는 중국 관광객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다. 한류의 고향에서 이를 배우고자 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세계 문화가 모여들어 함께 호흡하는 문화 다양성의 나라가 될 것이다.

둘째, 상호 문화주의를 실천하는 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세계인이 찾아오면 다양한 문화 사이의 상호 대화가 이뤄질 것은 분명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개방적이고 선진적인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문화 갈등 때문에 다소 서먹한 중국인들과도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에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우리 문화를 더욱 잘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한류의 내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영화, TV 드라마, 대중 음악을 비롯한 수많은 한류 전문가들이 세계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면 한류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특히 대학의 부설기관이 이를 준비한다면 더욱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어려운 대학 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방책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생각해보면 이런 의미와 효과는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우리 한국외대의 교육 이념 및 비전과도 딱 맞아 떨어진다. 한류 비자는 지난 30년 동안 만들어진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화를 통해 한류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기회, 우리 안에서 세계의 문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한류 비자 계획이 순조롭게 안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H

U



HUFS NEWS

[HUFS Topics](#)

[HUFS Today](#)

[HUFS Academies](#)

[HUFS Professors](#)

[NEW Professors](#)

[HUFS Institutes](#)

[HUFS Books](#)

[CUFS News](#)

F

S

2022학년도 한국외대 신입생 입학식

우리 대학은 3월 2일(수) 서울캠퍼스 애경홀에서 '2022학년도 한국외대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입학식은 오세홍 글로벌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의 사회로 기수단 입장, 국민의례, 입학 허가 선언, 신입생 선서, 신입생 환영 선물 수여, 박정운 총장 축사, 양인집 총동문회장 축사, 교가 제창 순서로 진행됐다. 박정운 총장은 3,826명의 신입생에게 “더 넓은 세계를 만나기 위해 한국외대에 입학한 여러분을 환영한다”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향해 성실하게 정진할 것,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는 성숙함을 갖춰나갈 것,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경험을 할 것”을 당부했다. 입학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전 신청을 한 신입생만 참석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신입생을 위해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한국외대, 제2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 전문교육기관 재지정 및 신규 5개 언어 추가 선정

우리 대학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원장 이은구, 이하 '특교원')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의 제1차 5개년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에 전문교육기관으로 참여한 데 이어, 제2차 5개년 사업에도 재지정됐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2차 5개년 사업에는 이탈리아어, 라오스어, 네덜란드어, 카자흐어, 스웨덴어 등 5개 언어 대상 사업을 추가로 운영한다. 특교원 이은구 원장은 “제2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에서는 대국민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의 지속적인 확장과 더불어 지원 언어 확대와 함께, 전공학과는 물론 다른 학과·대학이 연계 및 융합 가능한 교육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히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위축됐던 외국 대학과 기관과의 교류를 확장해 국내외 특수외국어 교육 확산 방안을 모색하는 협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상원 LEENAX 대표, 학교 발전기금 5천만원 기탁

나상원(영어 76·ROTC 18기) LEENAX 대표가 학교 발전기금 5천만원을 지난해 12월 1일(수) 기부했다. 부인 이명희 여사와 학교를 방문한 나상원 대표는 “오랜만에 방문한 모교가 눈부시게 발전한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면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후배들이 좋은 환경에서 글로벌 No.1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소회를 남겼다. 기탁식에는 나상원 대표와 119학군단 18기 동기인 장인상·박진현·정일택 동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김인철 전 총장, 김학태 전 재무·대외부총장, 가정준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했다. 프랑스로 이주해 무역회사 LEENAX를 설립한 나상원 대표는 30년 넘게 對 프랑스 무역에 종사하며 한불 경제 교류에 기여했으며, 프랑스 한인 사회 발전을 이끌었다.



행정직원 직무수행 관련,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장 전달식

1월 17일(월)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 총장실에서 우수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교원과 행정직원 7명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장과 한국대학신문 대학직원대상 전달식이 개최됐다. 행정직원의 업무 실적을 기반으로 한 표창 추천 결과 대학혁신지원사업,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 정부 학자금 지원, 대학 진로교육 활성화, 대학교육 발전, 교육통계 조사 등 6개 업무 분야에서 6명의 교원과 행정직원(이준 교육혁신원장, 손호섭 팀장, 권윤기 팀장, 나영규 실장, 이누리 과장, 정택문 과장)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학생지도 분야에서 1명의 행정직원(김혜정 과장)이 한국대학신문 대학직원대상을 수상했다. 표창장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인원 한국대학신문 회장을 대신해 김인철 전 총장이 수여했다.





GBT학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최

U-커머스 Competition 최우수상 수상

우리 대학 GBT학부 김다운·김민규·김유민·박다희·조현진 학생으로 구성된 'GAP' 팀이 지난해 11월 30일(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최하는 제2회 U-커머스 Competition(UCC)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GAP 팀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사이트 아마존에서 ㈜아이코닉스의 캐릭터 유아용품을 판매해 약 4천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우리 대학은 전년도 우수상, 장려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수상팀을 배출한 데 이어, 올해는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외대, 외교부 공동 주최

'제10회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 성료

우리 대학이 외교부와 한국브라질소사이터, 단국대와 공동으로 주최한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가 지난해 12월 3일(금) 서울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대회는 외교부가 외국어를 주제로 해 개최하는 유일한 행사다. 이번 대회에는 주최교인 우리 대학을 포함해 건국대, 단국대, 마카오대, 부산외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소속 본선 진출자 12명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며, 대상(외교부장관상)은 우리 대학 포르투갈어과 오희연 학생이 차지했다.



이탈리아연구센터(CISIC) 개소식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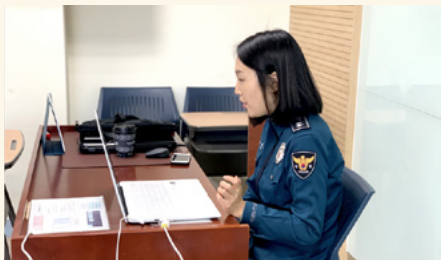
우리 대학 이탈리아연구센터(소장 김사홍)가 지난해 12월 3일(금) 대학본부 601호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대학 김인철 전 총장, 윤석만 전 부총장, 김봉철 EU연구소장, 윤경옥 대외협력부처장, 최병진 이탈리아어과 학과장 및 학과 교수진, 페데리코 파일라 주한 이탈리아 대사, 미켈라 마그리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장, 프란체스코 푸시 주한 이탈리아 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했다. 개소식에 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Italian Job' 사업이 론칭됐다.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

국제 e스포츠 연맹 주최 학술 공모전 대상 수상

우리 대학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학부장 박성희) 학생(곽승원·박다원·유혜연·이하승)으로 구성된 학회 '스테퍼'의 논문이 국제 e스포츠 연맹(IESF)에서 주관하는 학술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국제 e스포츠 연맹(IESF)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공동 개최한 학술 연구 공모전으로 논문과 연구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선정된 수상작은 국제 e스포츠 아카이브에 등재될 계획이다. 참여 학생은 부상으로 300만원을 수여받았다.



한국어문화교육원, 동대문경찰서와

온라인 범죄예방 교육 실시

우리 대학 한국어문화교육원(원장 김의수)은 지난해 12월 21일(화) 동대문경찰서와 2021학년도 겨울학기 한국어 정규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범죄예방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어문화교육원과 동대문경찰서 외사계가 협력해 일상생활 속 각종 범죄로부터 한국어문화교육원 소속 수강생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2 신고 방법, 보이 스팅 피해 및 가해 주의, SNS 사기 주의, 성범죄 예방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페르시아어이란학과, 제3회 페르시아 문화의 밤

-사베 알데 기념 행사 개최

우리 대학 페르시아어이란학과(학과장 유달승)는 지난해 12월 21일(화) 주한이란이슬람공화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일년 중 가장 긴 밤을 기념하는 페르시아 전통 명절 '사베 알데(Yalda Night)'를 맞이해 페르시아 문화의 밤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온라인 개최로 전환된 이번 행사는 '한국과 이란의 동지문화 소개', '페르시아어 시(詩) 낭송', '이란어 학습 동아리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폴란드어과,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교 선정

폴로니쿰상 수상

우리 대학 동유럽학대학 폴란드어과(학과장 김용덕)는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교가 수여하는 2021년 '폴로니쿰(Polonicum)상'을 수상했다. 2006년에 제정돼 올해 15회를 맞는 폴로니쿰상은 해외에서 폴란드어와 폴란드 문화를 전파하는데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바르샤바 대학교 측은 선정 이유로 한국인 학습자에 최적화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폴란드어 사전과 교재, 평가 문항 개발 등에 앞장서는 점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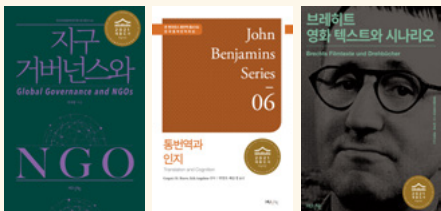
국제학부, 북극협력주간 '북극 차세대 대화' 참가

우리 대학 국제학부(학부장 이송래)는 학부 강의 'Introduction of Polar Studies'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9일(목)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북극협력주간 '북극 차세대 대화(Arctic Youth Dialogue)'에 대표단 학생들(지도교수 김봉철)이 참가했다. 해당 분야 전문가 및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참여해 북극의 문제에 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행사로, 우리 대학 국제학부 학생들은 북극이라는 국제 사회의 공통 문제를 이해하고 의견을 모으는 기회를 가졌다.



한국외대, 사론 최 초청 특강 개최

우리 대학 동유럽학대학(학장 김용덕)은 2020년 아카데미 레이스에서 봉준호 감독의 통역으로 이름을 빛낸 사론 최(최성재)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9일(목) 글로벌캠퍼스 국제세미나실에서 열린 강연회에는 통역과 번역, 영화와 문화 등에 관심 있는 1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사론 최는 '유연함으로 문화를 통역하기'라는 주제로 통역과 <기생충>, 영화, 현재 집필 중인 장편영화 시나리오의 주제에 이르기까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식출판콘텐츠원, '2021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3종 선정 및 한국대학출판협회

'2021 올해의 우수도서' 3종 선정

우리 대학 지식출판콘텐츠원(원장 고윤성)에서 출간한 도서 3종 「브레히트 영화 텍스트와 시나리오」, 「지구 거버넌스와 NGO」, 「통번역과 인지」가 출판 활동 고취와 지식기반 사회 조성을 위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21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으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브레히트 연극 사전」, 「롤리타」 바로 읽기, 「태극 들여다보기는 한국대학출판협회 '2021 올해의 우수도서'로 선정됐다.



바이오메디컬공학부, PAIP 2021

의료 AI Grand Challenge 경진대회 입상

우리 대학 바이오메디컬공학부(학부장 고윤희) 재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AIMLAB' 팀(지도교수 남윤호, 팀원 백다영·유한승·이기원·이준혁·장승운)이 'PAIP 2021 의료 AI Grand Challenge-Perineural Invasion in Multiple Organ Cancer'에서 최종 3위에 입상하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 PAIP Challenge는 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 서울대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국제 의료 AI 경진대회로, 전 세계에서 482명이 참가했다.



글로벌캠퍼스 진로취업지원센터, 2021학년도 2학기

HUFS H-UP 진로탐색학점제 결과 발표회 개최

우리 대학 글로벌캠퍼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본부장 오세홍) 진로취업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29일(수) 교육부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 사업으로 진행된 2021학년도 2학기 'HUFS H-UP 진로탐색학점제'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진로탐색학점제 2기에 선발된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고 진로와 꿈을 위한 노력과 진로 탐색,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미식축구 동아리 '블랙나이츠', 제61회 전국대학 미식축구 선수권전 Challenge Bowl 우승 패거
우리 대학 미식축구 동아리 '블랙나이츠(지도교수 김 봉철)' 팀은 지난 1월 23일(일) 경일대학교에서 개최된 제61회 전국대학 미식축구 선수권전 Challenge Bowl 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블랙나이츠 팀 은 창단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전국대학 왕좌에 올랐다. 우리 대학 학생으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팀 블랙나이츠 선수들의 훈련과 노력, 그동안 팀을 거쳐간 수많은 선배들의 지원과 관심이 어우러져 거둔 값진 성과다.



한국외대, 2022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생 오리엔테이션 'HUFS Freshman Academy' 개최
우리 대학은 지난 2월 10일(목) '한국외대 신입생 아카데미(HUFS Freshman Academy)'의 일환으로 라트비아, 이탈리아, 터키 등 3개국 대사관과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HUFS Freshman Academy'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생이 대학에 진학하기 전 갖춰야 할 감성과 인성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미네르바교양대학 주관의 오리엔테이션으로 지난 1월 중순부터 5주간 진행했다.



우리 대학 학부 과정 재학생팀, 2021 KMAC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경영혁신 논문공모전 우수상 수상
우리 대학 학부 과정 김세인(경영19)·원동욱(스페인어 18)·이수현(경영19)·최희원(IT19) 학생이 지난해 11월 22일(월) '제17회 KMAC 경영혁신 연구논문 및 사례연구 대학(원)생 공모전'에서 우수상(상금 200만원)을 수상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이 공모전은 경영혁신에 대한 참신한 시각을 발굴하고 이를 국내 산업계와 학계에 공유해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대학은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GBT학부, (주)드림픽처스21과 산학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우리 대학 GBT(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학부장 전종근)는 지난 2월 17일(목) 디지털 콘텐츠 제작사인 ㈜드림픽처스21과 산학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대학과 기업의 강점 및 특성화 분야에 대한 각자의 상호 관심과 인식을 같이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인적 교육 및 현장실습 등의 교류,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력 추진, 공동 협력 프로젝트 운영, 상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문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공탐색-메타버스' 개최
우리 대학은 지난 2월 5일(토) '전공탐색-메타버스'를 개최했다. 이번 전공 탐색에는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의 37개 학과(부)가 참가했으며, 우리 대학에서 교육하는 전공에 관심 있는 전국 300여 명의 수험생 대상 학과 교수, 재학생들이 직접 해당 학과(부)의 전공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세 타임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참가 학생이 희망하는 1개 타임을 선택해 관심 있는 전공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중국어통번역학과 이태규 학생, Forbes Korea 2030 파워리더 20인에 선정
우리 대학 중국어통번역학과 이태규 학생이 Forbes Korea의 2030 파워리더(IT-컨슈머 부문) 20인에 선정됐다. 이태규 학생은 2020년 채용 관리 솔루션 '그리팅(Greeting)'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두들린'을 창업했으며, 그리팅 서비스를 선보인 지 1년 남짓이지만 현재 쓰카, 아이디어스, 패스트파이브, 넷툰, 강남언니 등 1,300개가 넘는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준다. 이태규 학생은 "취업 채용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아카데미와 MOU 체결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단장 강준영)은 지난해 12월 28일(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아카데미(원장 박한진)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연구와 사업 모두에서 상호 협력의 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합의했다. HK+국가전략사업단의 연구 아젠다는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모색: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북방 문화 접점 확인과 문화 허브의 구축'이며, 두 기관은 2022년 1분기 '북방 지역 진출 관련 온라인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2022년 1월 정기 콜로кви엄 개최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단장 강준영)은 지난 1월 27일(목) 교수회관 2층 강연실에서 '최근 북중 관계 공고화 배경과 문명'이라는 주제로 2022년 1월 정기 콜로кви엄을 개최했다. 강연을 맡은 신중호 박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북한과 중국 관계를 역사적으로 조망하고 북중 관계의 특징을 제시했으며,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 회담을 거치면서 북중 관계가 변화하게 되는 요인을 분석했다.



극지역연구센터

'극지의 이해 시민 문화 교육' 강좌 성료
우리 대학 극지역연구센터(소장 최우익)는 지난해 11월 24일(수)~12월 3일(금) 송도캠퍼스 외대국제교육센터에서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극지의 이해 시민 문화 교육' 강좌를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와 주최하고 우리 대학 극지역연구센터와 러시아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시민 강좌에는 중남미연구소와 인천 소재 극지 관련 국제 연구기관인 극지역연구소 연구진이 참여했으며, 총 6개의 세션으로 나눠 극지 관련 다양한 강연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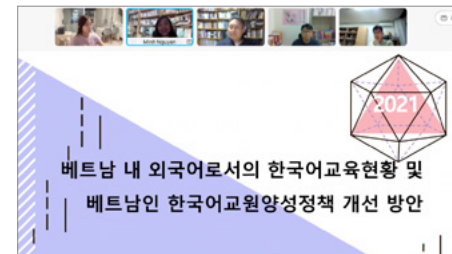
2021 북극협력주간 '북극의 인문·사회·경제 정책의 현황과 전망' 공동 세미나 개최

우리 대학 극지역연구센터(소장 최우익)는 지난해 12월 7일(화) 부산 벡스코(BEXCO)에서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북극학회와 공동으로 '북극의 인문·사회·경제 정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 세미나는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주최하는 '2021 북극협력주간'에 국내외 전문가가 북극 관련 정책, 과학, 산업, 문화 등을 종합 논의하는 국제행사의 일환으로, 후속세대와 전문가가 한자리에서 북극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동남아연구소

2021년 11월 정기 콜로кви엄 개최
우리 대학 동남아연구소(소장 박연관)는 지난해 11월 30일(화) 온라인으로 정기 콜로кви엄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кви엄에서는 하노이폴리텍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Nguyen Thi Nguyet Minh 교수가 '베트남 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현황'을 발표했다. Nguyen Thi Nguyet Minh 교수는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열풍과 한국어 교원 양성 정책 현황을 공유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의 품질 향상과 인프라 구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21 동계 인도-동남아시아 학술대회' 개최

우리 대학 동남아연구소(소장 박연관)는 지난해 12월 10일(금) 인도연구소, 한국태국학회, 국제인도-아세안 학회와 공동으로 '2021동계 인도-동남아시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 김찬완 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인도'와 '아세안' 두 개의 패널로 나뉘어 '인도 대전환의 실체와 도전'과 '포스트코로나, 아세안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국제 교류 및 기후 정책 과제 등의 이슈를 다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러시아연구소

제4차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크 컨퍼런스 개최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웅)는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유라시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외교부 주최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네 번째 행사로 모스크바 국제관계 대학교(MGIMO)와 공동으로 '한러 비전통 안보협력과 공공외교'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9일(목)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제1세션 '한러 비전통 안보협력', 제2세션 '팬데믹 이후의 한러 공공외교' 주제로 러시아와 한국 전문가 18명이 참여했다.



'유라시아 지역과 한국의 신북방정책, 현재와 미래' 세미나 개최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웅)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양자산업협력사업 중 신북방정책포럼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러시아연구소가 주관해 상시 소통 채널을 형성하고 신북방 경제권과 협력 수요 및 우선 과제 발굴을 통해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세미나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전문가들이 신북방 경제권 주요국의 경제·통상·산업·에너지 등에 대한 협력 환경 변화와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러시아 인문공간의 재인식: 러시아 속의 세계' HK+학술회의 개최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웅) HK+연구사업단은 지난 2월 22일(화) 인문한국 프로젝트 학술 활동의 일환으로 온라인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러시아 인문공간의 재인식: 러시아 속의 세계'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러시아연구소 HK+연구사업단 연구자들이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발표했고, 발표 후 발표자뿐만 아니라 토론자, 참석자들이 러시아의 여러 분야에 걸쳐 타자성, 특히 서구 문화의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인도연구소 HK+사업단

인도지역학 Winter School 개최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은 지난 1월 18일(화) 우리 대학 국제지역대학원과 공동으로 인도지역학 Winter School을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인도지역학 Winter School은 '신남방정책의 성과, 한계, 그리고 보완점'을 주제로 인도 정치, 외교, 경제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신남방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강의로 이뤄졌다. 인도지역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다수 참가하는 등 높은 관심을 얻을 수 있었다.



'제3회 한-인 2030 포럼' 개최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은 지난 1월 19일(수) '제3회 한-인 2030 포럼'을 온라인을 개최했다. 포럼은 '한국/인도 청년 문제의 현주소와 미래', '인도의 다양한 문화와 한국과의 만남'을 주제로 열렸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과 인도 청년들이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인도 문화의 다양성과 인도의 언어, 문학, 문화를 한국과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9회 콜로퀴엄 개최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은 지난 1월 24일(월) '인도전통극은 몸의 총체성을 어떻게 실현하는가?'라는 주제로 제39회 콜로퀴엄을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변영미 대표(스와라인디아-한국인도문화교류센터)는 인도 전통극의 특성과 예술 표현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것을 무대 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현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콜로퀴엄은 20여 명의 연구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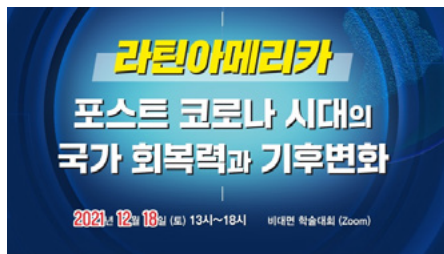
외교부 공동 '한국-중앙아메리카 포럼' 개최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전용갑)은 외교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11월 30일(화) '한국-중앙아메리카 포럼'을 개최했다. 중앙아메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내 최초의 전문가 포럼인 이번 행사에는 '동과 서/남과 북, 문명의 교차로 중앙아메리카: 재인식과 전망'을 주제로 총 9개 세션에 국내 전문가 45인이 참여했다. 세션별로 중미의 정치, 민주주의, 갈등과 통합, 국제 협력, 생태 환경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발표가 진행됐다.



라틴아메리카학회-외교부 공동 동계 학술대회 개최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전용갑)은 지난해 12월 18일(토) 라틴아메리카학회, 외교부와 공동으로 '라틴아메리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회복력과 기후변화'라는 주제로 동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총 7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학술대회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종교와 사회 통합, 국가와 사회 폭력,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남미 디지털 전환 등 라틴아메리카의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학문 후속세대의 참여가 두드러져 눈길을 끌었다.



유엔 하모니워드네이처 공동 아시아 최초 '지구법학과 자연권' 국제 학술대회 개최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전용갑)은 지난 2월 14일(월)~16일(수) 3일간,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산하 공식 프로그램인 하모니워드네이처의 공식 지원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안 세계관: 지구법학과 라틴아메리카의 자연권'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총 176명의 학자와 법률가, 정부 및 NGO 관계자들이 참가해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실현 가능한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 방안과 코로나19 이후의 대안적 세계관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EU연구소

제27회 IAGBT-KITRI Biannual Conference and Research Symposium 개최

우리 대학 EU연구소(소장 김봉철)가 International Academy of Global Business and Trade(IAGBT), Korea International Trade Research Institute(KITRI)와 공동으로 주최한 제27회 IAGBT-KITRI Biannual Conference and Research Symposium이 1월 20일(목)~22일(토)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 외에 유럽, 미국, 멕시코 등 다양한 국적의 학자들이 참여해 최근 국제 사회의 무역 관련 주제에 관해 논의했다.



장모네EU센터와 '2022 EU Student Conference' 공동 개최

우리대학 EU연구소(소장 김봉철)와 장모네 EU센터(소장 김시홍)는 지난 2월 9일(수), 대학본부 11층 대회의실에서 '2022 EU Student Conference'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 유럽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대학 EU연구소와 2011년 3월 유럽연합의 후원으로 개소하여 다양한 국내외 기관들과 협업하면서 한국과 유럽 간 외교증진에 기여해 온 우리대학 장모네 EU센터,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연구교류 진흥기관인 유락세스(EURAXESS) 한국 지부가 주관하였다.



신흥지역연구사업단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과 2021 전문가 초청 특강 '터키의 경제와 산업, 한-터 경제관계' 성료

우리 대학 신흥지역연구사업단(단장 오종진)은 지난해 12월 7일(화) 대학원 브릭스홀에서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이은구 원장)과 공동으로 '2021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터키의 경제와 산업, 한-터 경제관계'를 주제로 한 이번 특강은 11년 동안 터키 앙카라 시에서 한국문화원장을 역임한 조동우(현 산업통상자원부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전 주 터키 한국문화원장이 터키 지역을 전공하는 학생과 터키에 관심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장모네EU센터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국제 학술회의 개최

우리 대학 장모네EU센터(소장 김시홍)는 지난해 12월 10일(금) 롯데호텔에서 외교부와 유럽연합(EU)의 후원으로 장모네EU센터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과 유럽 양측의 대사들과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EU센터 소장이 참석했고, 우리 대학 장모네EU센터에서 봉사한 교수진, 연구원들과 석박사 조교단 등이 참석해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국제 학술회의는 <유럽과 동아시아 연계성: 안보, 무역 그리고 이동성>을 주제로 진행했다.



바이오메디컬공학부

제26회 ICMRI 2021 우수구연발표상 수상

우리대학 바이오메디컬공학부(학부장 고요희) 김수민 학생이 지난 11월, 그랜드 워커히 서울에서 개최된 제 26회 ICMRI 2021(International Congress on MRI 2021)에서 우수구연발표상(Best Trainee Scientific Awards – 2nd place)을 수상했다. 이번 학술회에서 김수민 학생은 남윤호 교수(바이오메디컬공학부) 연구실에서 학부 인턴연구원으로서 신생아의 T2 강조 MRI 영상으로부터 dilated perivascular space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동유럽발칸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사업단

아시아중동유럽학회 국제 학술회의 공동 개최

우리 대학 동유럽발칸연구소(소장 김정환)는 지난해 12월 17일(금) 아시아중동유럽학회와 공동으로 'Cultural Change and Transition in Post-Communist Eastern Europe—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Popular Art'라는 주제로 온라인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해외 6개국(미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폴란드, 헝가리)에서 저명한 학자들이 발표자로 참가했으며, 동유럽대학 및 동유럽발칸연구소 교수, 연구원, 학생이 참여했다.



일반대학원 터카중앙아시아몽골학과

학술제 개최

우리 대학 일반대학원 터카중앙아시아몽골학과(주임 교수 오종진)는 지난해 12월 30일(목)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대학원생 학술제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제는 학과 대학원생들이 터키,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의 문화, 정치, 경제, 사회와 관련된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한 지도교수들의 조언과 함께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학과 주임교수인 오종진 교수와 손영훈 교수, 김기선 교수, 이난아 교수 등 학과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서양어대학 이탈리아어과

이탈리아대사관과 문화원 서적 기증식 개최

우리 대학 서양어대학 이탈리아어과(학과장 최병진)는 지난 1월 28일(금)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을 방문해 페데리코 파일라 대사와 미켈라 린다 마그리 문화원장으로부터 이탈리아 서적 백여권을 기증받았다. 이날 기증식에는 서양어대학 김시홍 학장과 이탈리아어과 학과장 최병진 교수가 함께했다. 이번에 기증받은 서적 중에는 이탈리아 최고문학상인 Premio Strega 수상작들이 다수 포함돼 관련 분야 연구와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인문한국학연구소

학술 워크숍 「법과 언어」 개최

우리 대학 디지털인문한국학연구소(소장 이해윤)는 지난 1월 14일(금), 「법과 언어」라는 주제로 학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법학과 언어학의 융합연구 또는 다학제적 연구 주제들, 즉 법률언어, 법률정보, 법정통역, 법해석학, 언어범죄, 지식재산권 등을 있게 다루었다. 디지털인문한국학연구소는 2022년 「법과 언어」 워크숍 개최를 필두로 연구소 총서 시리즈, 학술지 <디지털 인문학>의 발간을 통해 인문학의 융합 연구에 관련된 다양한 학술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진영 융합인재학부 교수, 한국아랍어아랍문학학회 회장 취임

우리 대학 융합인재학부 최진영 교수가 한국아랍어아랍문학학회 제13대 회장에 취임했다. 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는 국내에서 아랍어학과 아랍문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자들이 중심이 돼 1997년 설립한 학회다. 최진영 교수는 현재 우리 대학 융합인재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기초아랍어문법」, 「아랍문화와 소통」, 「아랍어회화」, 「아랍무역실무의 이해」 등 다수의 저서와 교재를 집필했다. 임기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이다.



장영란 미네르바교양대학 교수, 한국동서철학회 저술상 수상

우리 대학 미네르바교양대학 장영란 교수가 지난해 12월 4일(토) 한국동서철학회에서 저술상을 수상했다. 저술상 수상작은 「호모 페스티부스: 영원한 삶의 축제」로 고대 그리스 축제의 주요 요소와 원형적 특징을 살펴보고, 인간의 삶의 실존적 한계 상황에 대한 인식과 고통의 치유로서 축제의 고유한 특성을 분석하고 현대의 놀이 문화와 여가 철학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선정됐다.



임대근 융합인재학부 교수,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회장 선출

우리 대학 융합인재학부 임대근 교수가 지난해 12월 11일(토)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정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는 2007년 창립돼 국내 문화 콘텐츠 분야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전국적 학술 단체다. 임대근 교수는 우리 대학 대만연구센터장, (사)아시아문화콘텐츠연구국 대표, 한국문화콘텐츠비평협회 부회장, 한국영화학회 연구지원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22년 1월부터 2년이다.

서재곤 일본어통번역학과 교수, 시선집 「천년의 잠」 일본어판 번역출판

우리 대학 일본어통번역학과 서재곤 교수가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인 오세영 시인의 시선집 「천년의 잠」의 일본어판 「千年の眠り」을 하야시 요코(인덕대학교) 교수와 공동 번역으로 일본에서 출판했다.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받아 간행된 일본어판에는 2012년의 시선집 간행 이후에 발표된 신작 21편을 포함한 시 81편과 일본어판 서문(오세영), 해설(서재곤), 연보가 추가됐다. 자세한 해설이 수록돼 있어서 일본인 독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재완 경영학부 교수, 「백지에 그리는 일자리」 출간

우리 대학 경영학부 양재완 교수가 공동 집필한 신간 「백지에 그리는 일자리」를 출판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교육기관 등 각계 각종 당사자의 전문성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신간 「백지에 그리는 일자리」는 공공에서 민간으로의 일자리 창출, 미래 인재 양성 및 주체 간 협업, 변화된 노동 시장을 반영한 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일자리(job)', '사람(people)', '환경(environment)'을 고려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 방안을 제안한다.



임형재 KFLT전공 교수,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회장 선출

우리 대학 KFLT전공 임형재 교수가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정기총회에서 제11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연구하는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참여한다. 임형재 교수는 “〈기생충〉, BTS, 〈오징어게임〉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가 크게 주목받고,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혁신이 함께하는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학술연구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2년 1월부터 2년이다.



HUFS Professors



김유강 영어통번역학부 교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우리 대학 영어통번역학부 김유강 교수의 저서 「고대영어 파생집사」가 2021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 성과 50선에 선정되면서 지난해 12월 16일(목) 윤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표창을 받았다. 이 책은 고대 영어의 파생 접두사와 접미사의 의미론적·형태론적 기능을 기술한 참고서로, 방대한 고대 영어 파생어 데이터를 제공해 고대 영어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형태론을 전공하는 언어학자의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원 독일어통번역학과 교수, 제1회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 서양화 부문 특별상 수상
우리 대학 독일어통번역학과 이재원 교수가 지난해 12월 17일(금) KMAF(KOREA MODERN ART FESTA) 2021 제1회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입상작 '연안부두 2021'은 이른 새벽 인천 연안부두에서 동지나해로 출항하는 대형 어선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12월 22일(수)~27일(월) 인사동 올겔러리에서 전시됐다. 이재원 교수는 “그림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작은 여유와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성은 EICC학과 교수, 한국번역학회 제12대 회장 취임
우리 대학 EICC학과 조성은 교수가 한국번역학회 제12대 회장에 취임했다. 1999년 설립된 한국번역학회는 〈번역학연구〉(등재 학술지) KCI 피인용지수 1위 유지(통번역학 분야), 인문학 전체 분야 KCI(2년) 영향력 지수 1위(2019년) 등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의 통번역학 단체로 알려졌다. 조성은 교수는 서울캠퍼스 교무처장을 역임했고, 영상번역과 한국문화 콘텐츠 번역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해왔다. 임기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이다.

김민정 사범대학 교수, 한국여성체육학회 회장 선출



우리 대학 사범대학 김민정 교수가 (사)한국여성체육학회 제29대 회장에 선출됐다. 운동생리학을 전공한 김민정 교수는 그동안 여성 건강에 관한 저서와 논문 출판은 물론 여성 체육인의 권익을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 해왔다. (사)한국여성체육학회는 1954년에 창립된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여성체육학 분야의 전문 학회로 학술지 발간, 학술 정보 교류, 여성 체육인과 체육 정책에 대한 문제점 개선 활동 등을 한다. 임기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이다.

윤선경 영어통번역학부 교수, 국제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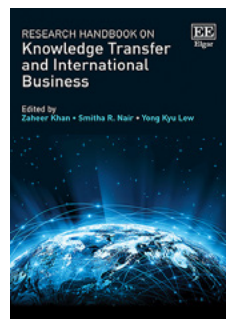


우리 대학 영어통번역학부 윤선경 교수가 2016년 맨부커상을 받은 데보라 스미쓰의 「소년이 온다」(한강 작) 영어 번역 「Human Acts」에 관한 논문을 국제저명 학술지 〈Acta Koreana〉에 출판했다. 이 논문은 스미쓰의 영어 번역을 자국어 번역으로 비판하는 기존 비평에 맞서 Human Acts를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한다. 특히 한국의 고유한 문화, 역사를 주체적으로 전 세계에 알리는 번역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교수 출간

류용규 경영대학 교수, 「Knowledge Transfer and International Business」 출간

우리 대학 경영대학 류용규 교수가 「Knowledge Transfer and International Business」를 출간했다. 지식경제의 시대에 국경을 초월하는 기업, 조직 간의 지식 이전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다. 출간 서적은 ‘전략적 관점’, ‘사회 및 인적자원 관점’, ‘지사의 지식 생성과 개발 관점’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국제적 지식 이전 방법과 메커니즘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국제 경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식 이전 이슈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NEW Professors

〈신임 교원〉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01 송예림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02 오준호
경영대학 경영학부

03 이은경
국제지역연구센터

04 정보은
국제지역연구센터

05 이상민
통번역대학 일본어통번역학과

06 최용주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07 전병환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08 Marcus Erik In-Hyon Mosesson
서양어대학 스칸디나비아어과

09 Phan Thanh Tam
아시아언어문화대학 베트남어과

10 Nicolas Damien Tuboeuf
사범대학 외국어교육학부 프랑스어교육전공

11 Zhang Bin
통번역대학 중국어통번역학과

12 Xia Guang Xing
통번역대학 중국어통번역학과

13 Dusanka Vujovic
동유럽학대학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14 Andre Luiz Ramalho Aguiar
국제지역대학 브라질학과

15 Joo Young Lee
국제지역대학 한국학과

16 Walid Abdullah Al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17 Wu Juan
융합인재대학 융합인재학부

18 Caleb Roland Belgard
외국어교육센터(글로벌)

외국어연수평가원

2022년 상반기 외국어교육과정

구분	과정명	개강시기	2022년 상반기 교육일정
주중과정	20주 주간과정	2월, 8월	02.07 ~ 06.24
	방학특별과정	7월, 1월	06.27 ~ 07.22
야간과정	야간회화과정	3월, 8월	03.08 ~ 05.31
주말과정	주말특별과정	3월, 8월	02.26 ~ 06.11

외국어연수평가원은 기초부터 고급까지 실용 외국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다양한 외국어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언어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마인어, 아랍어 등으로, 언어별 적정 인원 모집 시 개강한다. 주요 교육과정은 말하기·쓰기·듣기·읽기를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20주 주간과정, 단기간 실용 회화 능력을 집중 향상시키는 야간과정, 실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주말에 진행되는 주말 특별과정, 여름과 겨울방학에 단기과정으로 진행되는 방학특별과정 등이다.

문의 02-2173-2515, 2524, 2525 **홈페이지** <http://flttc.hufs.ac.kr>

기관/기업체 위탁 교육과정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연간 40개 이상의 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과 소속 임직원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은 위탁 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설하며, 의뢰 기관의 교육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위탁 기관의 특성과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어교육과정으로 설계 및 제공된다. 현재까지 인사혁신처,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화재에니카손사, 롯데인재개발원, 한화그룹, KEB하나은행, 현대중공업 등 많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공기업을 비롯해 국내 유수의 그룹과 기업체 등에서 교육을 했다. 특히 과정 이수 후 교육성과 및 만족도 면에서 높은 평가로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문의 02-2173-2515 **홈페이지** <http://flttc.hufs.ac.kr>

스페인어 자격시험 DELE

DELE는 스페인 교육 및 직업훈련부의 이름으로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Instituto Cervantes)이 수여하는

권위 있는 공인자격증으로, 스페인어의 언어적 능력과 경쟁력을 증명한다. 한국외대는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Instituto Cervantes)과 협정을 맺은 DELE 시험 시행기관으로 연 3차례(5, 7, 11월) DELE 자격시험을 진행한다. 시험을 통해 획득한 DELE 자격증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

문의 02-2173-2498 **홈페이지** <http://dele.hufs.ac.kr>

세르반테스 교실(Aula Cervantes) 스페인어 강좌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Instituto Cervantes)과 협력해 교내에 세르반테스 교실(Aula Cervantes)을 개설, 스페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스페인어 일반어학과정(A1~C2), DELE 시험 대비반(A2~C1), 단기특강(DELE문법, DELE구술대비반, 비즈니스/여행/축구 스페인어) 등 모든 강좌는 전문 원어민 강사가 지도한다. 평일과 주말에 모든 과정이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의 02-2173-3593 **홈페이지** <http://seul.cervantes.es>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ulaCervantesSeul>

서울평생교육원

통번역기초과정

서울평생교육원은 통번역센터와 협업을 통해 '통번역 기초과정'을 운영한다. 2014년 개설해 현재까지 350여 명이 수강한 통번역기초과정은 한국외대의 통번역 교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며, 통번역의 기초 기술을 학습함으로써 외국어 구사력을 종합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9개 언어에 대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며 연 2회, 3월과 9월에 개강한다. 통번역에 관심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문의 02-2173-2524 **홈페이지** <http://edulife.hufs.ac.kr>

FLEX센터

2022년 FLEX 정기시험 일정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시험은 우리대학이 수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전문적인 외국어능력시험으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

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이다. 현재 주요 7개 언어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의 정기시험을 연 4회, 3개 영역(듣기·읽기, 쓰기, 말하기)으로 나눠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FLEX는 모든 평가 언어가 듣기·읽기 영역에서 국가공인자격을 획득, 대내외적으로 신뢰도와 변별력이 높은 시험으로 그 우수성을 높게 평가 받고 있다.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1회	02. 17 ~ 02. 23	03. 20	04. 08	04. 22
2회	04. 28 ~ 05. 04	05. 29	06. 17	07. 01
3회	08. 04 ~ 08. 10	09. 04	09. 23	10. 07
4회	10. 06 ~ 10. 12	11. 06	11. 25	12. 09

문의 02-2173-2529, 2532 **홈페이지** <http://flex.hufs.ac.kr>

기관 맞춤형 외국어 능력 평가 상시 시험

FLEX센터는 기업체, 정부, 공공기관, 학교, 학원, 단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과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외국어 능력 평가를 상시 시행한다. 이 시험은 기존 정형화된 시험과 달리 의뢰 기관에서 시험 내용, 시험 일정 등을 자유롭게 지정해 진행할 수 있다. FLEX센터의 외국어 능력 평가는 국내 주요 정부기관, 공기업,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체에서 채용, 인사고과, 승진, 해외 파견 대상자 선발 등에 폭넓게 활용한다.

문의 02-2173-2530 **홈페이지** <http://flex.hufs.ac.kr>

특수외국어능력평가 시험

FLEX센터는 '2020년 특수외국어교육진흥 시행계획(2020. 3. 26)'을 근거로 국립국제교육원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과 연계해 특수외국어능력평가를 개발했다. 이 시험은 15개 특수외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어학 평가로서 평가인증 체제의 활용을 확대하고 전문 인재 양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2020년 11월 14일(토), 2021년 5월 8일(토) 시행됐다. 2022년 시험은 2022년 5월 7일(토) 시행될 예정이며, 특수외국어능력평가 응시자는 국비유학생 프로그램 관련 분야 지원 시 해당 성적을 제출하고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문의 02-2173-2529, 2532 **홈페이지** <http://flexcifl.hufs.ac.kr/>

TESOL전문교육원

2021학년도 후기(38기) 영어세미나(Practicum) 진행

TESOL전문교육원은 2021년 12월 28일(화)부터 2022년 1월 15일(토)까지 한 달여 간 학기의 마지막 과정인 영어세미나를 진행했다. 영어세미나는 지난 1학기 동안 TESOL 연구 과정을 수강한 24명의 학생이 그동안 배웠던 이론을 직접 교수님과 다른 학생 앞에서 시연하고 평가받는 마지막 평가 과정으로 7명의 원어민 교수님들이 평가에 참여했으며, 영어세미나 평가를 마지막으로 2021학년도 후기(38기)과정을 마무리했다.

2022학년도 전기(39기) 교육생 일반/특별전형 모집 진행

TESOL전문교육원은 2022학년도 전기 과정생 특별전형 모집을 진행했다. 2022년 1월 3일(월)부터 1주일간 원서 접수를 진행했으며, 2022년 1월 16일(일)에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치렀다. 지원자는 영문 자료 읽기와 영어 인터뷰를 했고, 이 과정을 통과한 20여 명이 지난 3월 2일(수)에 개강한 2022학년도 전기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2022학년도 후기(40기) 일반전형은 다가오는 2022년 5월 2일(월)부터 9일(월)까지 1주일간 원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학년도 전기(39기) 등록자 대상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개최

TESOL전문교육원은 2022년 2월 19일(토) 신입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본격적인 학기가 시작되기 전, 전반적인 커리큘럼 이해도를 높이고 교수료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사, 장학, 인턴십 참가 등 TESOL연구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리엔테이션은 2022학년도 전기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등록자를 대상으로 1시간 동안 Zoom을 통해 진행됐다.

한국문화교육원

겨울학기 한국어 정규과정 및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과정 개설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연 4회, 10주로 구성된 한국어 정규과정과 고급 한국어 구사를 위한 필수 과정인 통번

역을 위한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번 겨울학기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한국어 과정을 함께 개설해 해외 체류 중인 한국어 학습자를 유지했으며,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우리 교육원에는 중국이나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 외에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45여 개국의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교육받고 있으며,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말하기 중심 수업으로 외국인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문의 02-2173-2262

겨울학기 한국어문화교육원 멘토링 봉사단 운영

한국어문화교육원은 한국외대 학부생(멘토)에게 한국어문화교육원 연수생(멘티) 대상 멘토링(한국어 학습 및 한국문화 전도) 기회를 제공해 학문적 지식은 물론 도덕적 인격을 겸비한 글로벌 융복합 인재로 양성하며, 한국어문화교육원 연수생에게는 캠퍼스 생활의 안정적 정착과 한국외대 학부 입학을 유도하고자 한다. 2021학년도 봄학기부터 시작된 멘토링 봉사단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국 학부생 및 외국 연수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문의 02-2173-2262

국제사회교육원/영재교육원

2021년 삼성외국어생활관

글로벌인력양성과정(3차) 프로그램 운영

국제사회교육원은 2021년 12월 13일(월)부터 2022년 2월 18일(금)까지 10주간 '삼성외국어생활관 글로벌인력양성과정(3차)'를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삼성그룹 임직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 교육 및 향후 유관 업무를 진행할 지역에 대한 지역 이해 콘텐츠로 구성됐다. 교육을 마친 교육생은 소정의 평가를 통해 현지어 기반 비즈니스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협업 부서로 돌아가 교육을 통해 축적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KB국민은행 글로벌 어학평가회 개최

국제사회교육원은 2021년 12월 4일(토) KB국민은행 글로벌 어학평가회를 개최했다. KB국민은행 임직원 22명을 대상으로 6개 특수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미얀마어, 벵골어 및 힌디어) 평가로 이뤄

졌다. 이 평가는 KB국민은행 주재원 Pool 선발 및 관리를 위한 전략 지역 어학 수준 측정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2022년 삼성외국어생활관 주재원

실무역량강화과정(1차) 운영

국제사회교육원은 2022년 1월 17일(월)부터 2022년 2월 11일(금)까지 4주간 '삼성외국어생활관 주재원 실무역량강화과정(1차)'를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삼성그룹 예비 주재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 교육 및 향후 유관 업무를 진행할 지역에 대한 지역 이해 콘텐츠로 구성됐다. 교육을 마친 교육생은 과정 종료시 소정의 어학 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글로벌 각지로 파견돼 주재원 생활을 한다.

영재교육원 2021학년도 정규과정 성료

영재교육원은 2021학년도 영재교육원의 정규과정을 2022년 1월 8일(토) 온라인 수료식을 끝으로 성료했다. 초등 4학년 영어 14명, 초등 5·6학년 영어 14명, 초등 5·6학년 수학 15명, 중등 1·2학년 영어 15명 등 총 58명이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다. 2022학년도 영재교육원 정규과정은 2022년 3월 5일(토) 온라인 비대면 입학식을 시작으로 1년 동안 월 2회, 총 16회의 정규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번역센터

국내 최고의 통번역 서비스 제공

통번역센터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및 학부와 연계해 최정상급 다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역은 매년 260여 건 이상 17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태국어, 이탈리아어, 터키어, 히브리어, 캄보디아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번역은 매년 1,800건 이상 18개 언어(영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포르투갈어, 터키어, 이탈리아어, 미얀마어, 히브리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의 전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02-2173-2566, 2569 **홈페이지** <http://hufscit.com>

새로운책



21세기 러시아의 이해

21세기 들어 러시아가 구사하고 있는 세 가지 방향의 공세 전략에 대한 책이다. 첫 번째는 공간 전략이다. 러시아는 옛 소련권 영토를 중심으로 한 공간에서 자국의 배타적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면서 특별 이익지 대화하려 한다. 두 번째는 역사적 기억 및 문화적 자존심을 수호하려는 역사 및 기억 전쟁으로, 이는 민족주의 및 애국주의 경향과 맞물린다. 세 번째는 현 글로벌 체제 내에서 러시아의 위상과 러시아의 상징성을 수호하려는 현재의 글로벌 제도 유지 전쟁이다.

김석환 / 330면 / 152x225 / 27,000원

이란어(페르시아어) 표준 교재 A2

현재 이란에서 공용어로 통용되는 페르시아어를 배우려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어휘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용 교재다. 교육부 특수외국어 진흥사업의 표준교육과정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집필됐다. 표준교육과정 교재는 A1(입문)~A2(초급)~B1(중급)~B2(중상급)~C1(상급)~C2(최상급)의 6단계로 나뉘어 개발되는데, 이 교재는 A2 과정이다. A1 과정을 충실히 학습한 학습자가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구성했다.

곽새라, Fahime Ghapandari Bidgoli, Somayeh Aghajani kalkhoran / 246면 / 46배판 / 25,000원

인도네시아어 표준 교재 A2

「인도네시아어 표준 교재 A2」는 국내에서 인도네시아어를 전공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어를 배우려는 일반인,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교재다. 인도네시아어 발음부터 기본적인 어휘, 문형, 문법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재미있게 구성했다. 「인도네시아어 표준 교재 A1」을 잇는 초급 2단계로 교재로서, 표준교육과정에 기초해 집필했고, 처음 인도네시아어를 접하는 학습자가 혼자서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게 꾸몄다.

고영훈 / 142면 / 46배판 / 20,000원

FLEX UP 인도네시아어

「FLEX UP 인도네시아어」는 인도네시아어를 제대로 구사하고 각종 인도네시아어 능력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는 이를 위한 책이다. 전반부에서는 고득점 전략을 설명하고, 듣기 문제와 읽기 문제의 유형을 분석하고, 관련 문법을 설명하며, 정답을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실전 문제에서는 실제로 출제될 만한 유형의 문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인도네시아어를 전공하는 학생, 공무원 등 정부 주관 시험을 준비하는 이에게 도움이 되기 바란다.

고영훈 / 244면 / 46배판 / 18,000원

시베리아 문화

시베리아는 언제부터 존재했고, 누가 어떤 문명을 일구었을까. 이 책은 시베리아에 관심을 가진 모든 독자에게 시베리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먼저, 시베리아의 자연과 문화를 현대적 관점에서 개괄한다. 또한 시베리아의 원초적 존재로부터 고대 부족사회, 근대 제정러시아, 소비에트 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시베리아를 역사·문화적 관점에서 세밀하게 논증한다. 문학 연구자와 정치학자, 역사학자에게 러시아 연구의 지평을 시베리아로 확장시켜줄 것이다.

L. M. 모솔로바 외 / 516면 / 신국판 / 24,000원

헝가리어 표준 교재 A2

「헝가리어 표준 교재 A2」는 헝가리어의 문자와 발음, 기본적 문법과 어휘 지식을 습득한 학습자가 본격적으로 헝가리어 문법 지식과 어휘 능력을 갖추고, 일상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표다. A1 교재와 비교해 교재의 내용과 분량이 확대돼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각 과의 독해 텍스트를 실제 헝가리 현지에서 생활하는 한국인 학습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헝가리인의 일상생활과 문화적 체험 등으로 구성해 흥미를 갖고 공부할 수 있게 했다.

박수영, Kiss Attila, Tóth Tünde / 314면 / 188x257 / 29,000원

2022년 전기 학위 수여 온라인 개최

사이버한국외대는 2월 26일(토) 2022년 전기 학위 수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학생들의 안전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는 대신 총장 직무대행의 졸업 축하와 각 학부·학과 교수들의 축하 등을 담은 학위 수여 영상을 제작해 대학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했다. 2022년 전기 학위 수여에서는 학사 912명, 석사 9명 모두 92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타의 모범이 된 학부·대학원 졸업생에게는 총장상, 학장상, 성적우수상, 모범상, 공로상, 한국원격대학협의회장상, 대학원장상 등이 수여됐다.



2022학년도 1학기 온라인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사이버한국외대는 2월 26일(토) 온라인으로 2022학년도 1학기 신입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총장 직무대행 축하에서는 새로운 가족이 된 학생들을 환영하고,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전 구성원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학생들의 대학 생활 설계와 온라인 학습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게 학사 안내, 강의 수강과 콘텐츠 안내, 대학 생활 안내 등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제공했다.



베트남 동아대학교와 국제교류 협약 체결

사이버한국외대는 베트남 동아대학교와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1월 17일(월) 온라인으로 진행된 체결식에서 양 대학은 상호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 교직원과 학생의 교육연구에 관한 교류, 기타 학술 및 교육 프로그램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어문화학과가 개설된 베트남 동아대와 외국인 대상 '한국어 전공'을 운영하는 본교 한국어학부 간 교류를 통해 베트남 학생들에게 양질의 한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협력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



K-MOOC에 '진료중국어(FLEX-2급)과정'

목음 강좌 개설·운영

사이버한국외대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서 '클릭하며 배우는 진료중국어(FLEX-2급) 과정' 신규 목음 강좌를 1월 10일(월)부터 선보였다. 이 과정은 '쉽게 들어가는 중국어 입문', '패턴으로 정복하는 중급 중국어', '통증을 알아듣는 진료 중국어', '통증을 물어보는 진료 중국어' 4개 강좌로 구성됐다. 의료진들의 중국인 진료 시 요구되는 실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진료 현장의 적응력 함양에 기여하고,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려 기획됐다.

영어학부, 전문가 초청 온라인 라이브 특강 개최

사이버한국외대 영어학부가 학생들의 학습 지원과 유용한 지식 정보 공유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한 콜로кви엄 특강을 영어학부 공식 유튜브(Youtube)를 통해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어교육 유튜브 채널 '달변가 영쌤'의 운영자 김영옥 강사를 초청해 '영어가 보이고, 들리게 되는 전치사의 모든 것'에 대한 콜로кви엄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내외국인 교수의 유튜브 및 줌 활용 화상 특강, 원어민 교수와 전화 영어 수업 등을 실시해 교육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일본어학부, '제12회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 개최

사이버한국외대 일본어학부가 주최하는 '제12회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가 1월 22일(토)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 콘테스트는 학생들이 국제적 감각을 함양하고, 일본어와 일본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일본어 실력을 유감없이 펼칠 수 있게 마련한 자리다. 본선에 진출한 참가 학생 13명은 독창적인 주제와 풍부한 표현력으로 뛰어난 스피치를 선보였다. 일본어학부 교수진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공정한 심사 대상, 최우수상 등 5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했다.

한국어학부 진정란 교수,

이중언어학회 제21대 회장 선출

사이버한국외대 한국어학부 진정란 교수가 이중언어학회 제21대 회장에 선출돼 2022년 1월부터 2년간 학회를 이끌게 됐다. 진정란 교수는 온라인 한국어 교육 분야의 권위자로 현재 한국외국어교육학회 부회장, 한국어교육기관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영어학부 남대현 교수의 출원 특허,

기술이전 성과로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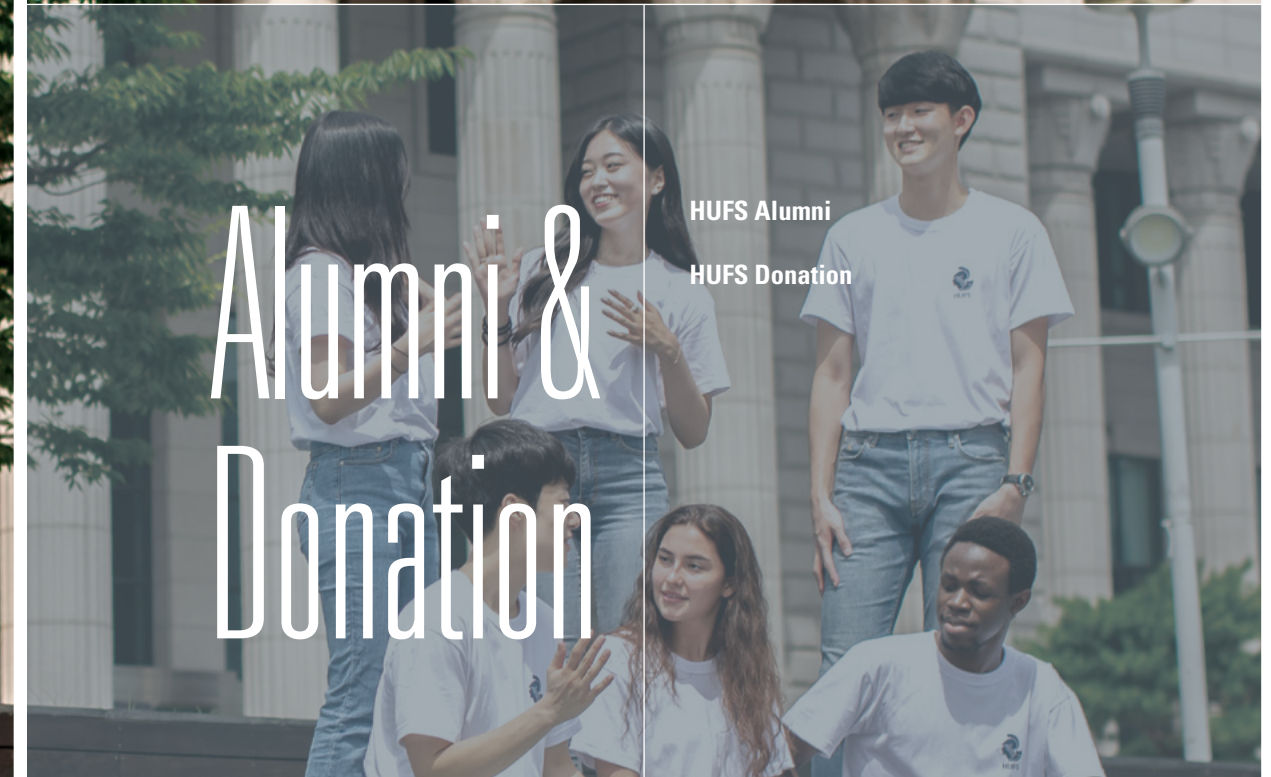
사이버한국외대 영어학부 남대현 교수가 대표 발명자로 개발·출원한 특허 '언어 패턴 제안을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지난 12월 교육지원 서비스업 벤처 기업인 (주)프로키언에 기술이전을 완료했다. 이 특허는 영어 빅데이터 분석에서 얻어지는 단어 조합의 패턴을 활용한 기술이다.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임영호 교수 정년 맞이해

사이버한국외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임영호 교수가 2월 28일(월) 정년을 맞았다. 임영호 교수는 2019년 3월부터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장을 맡아 아세안 지역에 특화된 인재 양성에 힘썼고, 인도네시아 대학 및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 사이버한국외대의 외연 확장에 기여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전달했다.

H

U



HUFS Alumni

HUFS Donation

F

S

HUFS Alumni

외연회 주관 '2021 외대 언론인의 밤' 개최,
'올해의 외대언론인상' 이종근, 이소정 동문 수상

지난해 12월 8일(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대 언론인회(회장 김중구, 정치외교 77)가 주관한 2021 외대 언론인의 밤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언론계에서 활약하는 우리 대학 출신 언론인과 대학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김홍열(영어 86) 한경글로벌뉴스네트워크 대표의 사회로 김중구 회장의 환영사, 김인철 전 총장과 양인집 총동문회장의 축사, '올해의 외대 언론인상'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의 외대 언론인상' 시상식에서는 경향신문 논설주간 이종근(스페인어 84) 동문과 KBS 9시 뉴스 앵커 이소정(스페인어 96) 동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갑동 동문, 한쿠바 문화친선협회 회장 취임

우리 대학 조갑동(스페인어 55) 동문이 지난해 10월 5일 한쿠바 문화친선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조갑동 회장은 2005년부터 이끌어오던 협회를 대폭 개혁·확대하고, 대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1959년에 단절된 쿠바와의 국교를 회복, 양국 간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조갑동 회장은 "2021년은 우리나라의 쿠바 이민이 시작된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가난한 법학도의 어머니' 조명덕 여사 소천

우리 대학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거액의 기부금을 희사한 조명덕 여사(명예 법학박사)가 지난해 12월 8일(수) 향년 87세로 영면에 들었다. 평안남도 진남포 출신인 조명덕 여사는 학생이던 당시 한국전쟁 발발로 서울로 피란했다. 이후 법률 분장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대학 법대 교수(이강혁 한국외대 4대 총장)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고, 이 일을 계기로 법률을 잘 모르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 헌신할 법조인 양성에 뜻을 두고 사재(私財)를 출연해 법학도를 돕기 시작했다. 근검절약해 모은 재산 중 42억여 원을 기부했으며, 장학생들을 초대해 따뜻한 밥을 해먹이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호주 시드니 동문회, 연말 송년회 개최

호주 시드니 동문회(회장 윤수, 독일어 76)가 지난해 12월 10일(금) 시드니 연말 정기총회 및 가족 동반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임은 현지 동문과 가족 45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 윤수 회장은 "재개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호주 동문의 보다 적극적인 동문회 참여와 활발한 교류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현 회장단(회장 윤수, 부회장 안승규(터키어 79), 총무 유재우(경영 89))을 2년간 연임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재 심천 외대 동문회, 회장단 개편

중국 재 심천 외대 동문회가 2022년 임인년을 맞아 회장단을 개편했다. 그동안 심천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회장으로 수고해준 오송호(불어 86) 동문이 2021년을 끝으로 회장 임기를 마치고, 2022년부터 박병화(중국어 88) 동문이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신임 박병화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해당 지역 동문의 결속을 다지며 학교와 동문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UFS Alumni

동문 출간

설균태(영어 59, 재경문우회장)
재경문학
(재경문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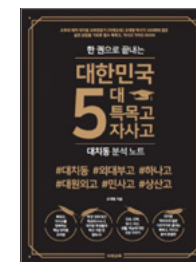
이상환(폴란드어과 91,
인천세관 공항여행자통관1과 통관팀장)
불안해요? 지켜보는 저도 불안해요
(가연)



조동희(일본어 03)
코끼리 보러 갔다가 창업을 했습니다
(지식과 감성)



조재형(헝가리어 03)
한 권으로 끝내는 대한민국 5대
특목고, 자사고 대처동 분석노트
(미래교육)



강민수(폴란드어 10)
알하는 이유
(북랩)



채다은(법학전문대학원 12, 47기)
당신 탓이 아니다
(좋은땅)



강유현(미디어커뮤니케이션 12)
아들아, 여행 갈래?
(좋은땅)



Alumni News

2021. 12. 01. ~ 2022. 02. 28.

HUFS Alumni

정부기관

김동욱	법학97	경찰청 울산경찰청 안보수사과장
김순호	공공정책(석)03	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수원남부경찰서장(경무관)
김영근	공공정책(석)05	경찰청 전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경무관)
심한철	공공정책(석)04	경찰청 경비과장
정진관	공공정책(석)04	경찰청 경무관
고영훈	영어교육98	교육부 교육기획보좌관
공병훈	법학11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은정	정치외교96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강기람	법전원16	법무부 춘천지방법청 영월지청 검사
강희윤	법전원18	법무부 창원지방법청 검사
고려진	신문방송01	법무부 수원지방법청 안산지청 검사
김가연	법학08	법무부 서울북부지방법청 검사
김원재	정치외교06	법무부 서울남부지방법청 검사
박재형	법전원17	법무부 수원지방법청 성남지청 검사
서창원	법학90	법무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손세희	법전원18	법무부 창원지방법청 검사
송명진	법학02	법무부 서울동부지방법청 검사
오승식	법전원14	법무부 대구지방법청 서부지청 검사
유성문	법전원15	법무부 대전지방법청 천안지청 검사
한경우	법전원15	법무부 수원지방법청 성남지청 검사
윤용태	아프리카85	새만금개발청 운영지원과장
권동석	노어83	외교부 주 타지키스탄 대사

기업

강동만	이란어86	동원그룹 동원홀푸드 대표이사(축육부문)
황지훈	일본어통번역86	쌍용C&E 해외영업팀 상무보
이수영	경제89	웅진 부사장
서기호	화학88	아수그룹 전무
정탁	아랍어77	포스코 사장(마케팅 본부장)
홍경선	국제경영87	효성그룹 효성첨단소재 상무보
이영환	프랑스어80	GS글로벌 대표이사 사장

언론

김성규	신문방송87	경인일보 디지털미디어센터장
김성규	신문방송87	경인일보 편집국 국장
신광영	영어88	동아일보 국제부 차장
최석환	국제통상95	머니투데이 정책사회문화부 부장
이경은	스페인어92	스포츠허보 신문제작부장
박재일	정치외교80	영남일보 편집국장
강병준	경제87	전지신문 이사·편집국장
김상진	일본어99	중앙일보 편집국 차장
이예스터	영문02	중앙일보 편집국 차장
신경훈	포르투갈어83	한국경제신문 디지털자신센터장
오광춘	신문방송94	JTBC 보도국 부장
유상욱	영어91	JTBC 보도국 부장
신철균	프랑스어88	KBS 광고국장

공공기관

이재성	스페인어78	경기관광공사 사장
송치웅	경제8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첨단기술전략연구센터장
이정훈	법학88	기술보증기금 전주지점장
이종배	경제83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임선형	경영85	기술보증기금 서울동부지역본부장
조영길	행정87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장
윤철민	국제통상89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실장
이상준	국제경영90	대한상공회의소 아셈개발팀장
임철	인도어87	대한상공회의소 감사실장
박한수	아랍어82	세계한인무역협회 부회장
김정기	포르투갈어85	주택금융공사 부산지사장
김상우	중국어8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서부지부장
배경화	행정(박)0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장
이광진	행정9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획조정실장
김정환	정치외교8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서울시선관위 강동구선거관리위원
조광동	스페인어55	한·쿠바문화친선협회 회장
송기명	영어90	한국가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채권시장부장
이승범	스페인어79	한국공항 사장
김종훈	이탈리아어86	한국관광공사 경영지원실장
박정웅	이탈리아어88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
안효원	영어94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장
정진수	일본어84	한국관광공사 일본지점장
조윤미	노어96	한국관광공사 관광빅데이터전략팀장
김명재	일본어88	한국도로공사 영업처 영업정책팀장
오주환	영어86	한국무역보험공사 구로디지털지사장
이병호	국제통상89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보상채권부장
심준서	행정83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장
권용수	영어85	한국부동산원 수도권지역본부장
김준권	정치외교97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2팀장
신준영	경영90	한국은행 인사경영국
이순호	경제84	한국은행 국제국
최오현	법학86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장
한덕규	행정89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지원총괄차장
김성현	아랍어97	한국조폐공사 영업개발처 영업운영팀장
이택기	경영86	SG서울보증 신용회복지원2단 부서장

학계

조형우	정치외교97	경남농협 회원지원단장(기획역)
박성철	경제86	경북농협 광역연합사업단장
김기훈	일본어88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감사국 국장
김태국	경제88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과산군자부 농정지원단장
이창완	법학91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경제지주 부분부장
황준규	사학85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김경완	법학84	산업은행 충청지역본부장
김은영	베트남어92	산업은행 인사부 팀장
이영훈	노어88	산업은행 부천지점 팀장
이정민	법학96	산업은행 무역금융실 팀장
장민	인도어85	산업은행 전주지점장
한영관	경영89	신한금융투자 신한PWM 서울FC 센터장
마남표	국제경영98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라운지 금융센터 WM1센터장
고영환	영어90	하나금융투자 부사장
이혁	독일어92	한국기업데이터 평가정책부서장
김희갑	경영정보85	한화손해보험 고객센터실장
이승훈	국제통상92	BNK금융그룹 마케팅추진부장
민경배	경제88	IBK캐피탈 리테일금융부장
권순형	경영정보85	KB국민카드 영업지원그룹 전무
박성수	국제통상83	KB국민카드 영업그룹 부사장
성백준	경제85	KB국민카드 경영기획그룹 전무
이준성	경제86	KDB산업은행 부행장(혁신성장부문장)
윤병운	중국어통번역86	NH투자증권 부사장(IB1 사업부 대표)
김태경	이탈리아어87	SH수협은행 디지털개인금융부장

권동현	독일어통번역99	세명대학교 총장
-----	----------	----------

Donation News

HUFS Donation



조희환 명예교수, 강의실 헌정식 개최

지난해 12월 8일(수) 우리 대학 인문과학관 404호에서 조희환(중국어 59) 강의실 헌정식을 거행했다. 중국학대학 명예교수인 조희환 교수는 모교의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총 2억1,600만 원을 기부했다. 김인철 전 총장은 “학문의 발전과 실용 인재 양성을 통한 사회 공헌이라는 염원과 당부를 잊지 않고 있다”면서 “소중한 기부금을 대학 교육 발전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희환 명예교수는 “외대는 언어와 사회과학의 융복합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다”면서 “언어를 기반으로 학문의 장벽을 넘어 정통 학문과 현실 학문의 결합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한국외대와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더 빛나기를 염원한다”고 전했다. 이날 헌정식에는 김학대 전 재무·대외부총장, 중국학대학 김중호 학장, 박홍수 교수를 비롯해 강준영 국제지역연구센터장, 박치완 철학과 교수가 참석했으며, 가족으로 아내 정복임 여사와 아들 조재형 박사, 조희환 교수의 오랜 친구이자 동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부자 감사의 밤 개최

지난 1월 25일(화)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외대의 번영과 대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재원을 희사해 큰 뜻을 펼친 기부자를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기부자 감사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가정준 대외협력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김인철 11대 총장, 박정운 12대 총장, 양인집 총동문회장이 기부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이어 전성철(이탈리아어 76) (주)세이브 회장의 우리 대학의 발전을 염원하는 건배 제의와 장윤진 피아니스트와 서혜주 바이올리니스트(SW아트컴퍼니)의 감사 공연이 이어졌다. ‘학교발전을 위한 제언’에서는 조희환(중국어 59) 중국학대학 명예교수, 안홍진(국제통상 75) 오피니언타임즈 부회장, 김덕술(일본어 81) 유니스토리자산운용 회장, 진미경 초빙교수의 학교 발전을 위한 격려와 조언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외협력처, 재직 교직원에게 기부 감사 인사 전달

대외협력처는 지난해 12월 1일(수) 일정 금액 이상 학교 발전기금을 기부한 우리 대학 김옥범 연구산학협력단 기획총괄팀장(글로벌), 홍순혁 교무행정팀장(서울), 윤경욱 대외협력처 부처장, 최완식 대학원 사무2팀 과장, 옥진호 국제학사(GlobeDorm) 학사운영팀장을 초청해 기부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가정준 대외협력처장은 “행정 최일선에서의 묵묵한 헌신과 함께 소중한 기부로 외대 사랑을 실천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후 12월 21일(화) 1억원 기금을 약정한 우리 대학 김봉철 교수(국제학부), 임소라 교수(포르투갈어과), 윤성우 교수(철학과)를 초청해 소중한 약정기부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전(前) 대외협력처장이자 화가인 이재원 교수(독일어통번역학과)가 직접 아이패드로 그린 그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작품을 증정받은 교수들은 한 목소리로 “각자의 각별한 애정이 담긴 시절의 도시와 공간, 인물을 그린 작품을 선물 받아 의미가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 가정준 대외협력처장은 “모교에 대한 깊은 사랑과 대학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큰 금액을 약정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Donation News

HUFS Donation

2021. 12. 01. ~ 2022. 02. 28.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강동희	통번역대학원 한노·전공(박) 17	30,000
강명남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인도어과 93	30,000
강지혜	동유럽대학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04	30,000
고태수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07	30,000
고혜섭	법과대학 법학과 03	90,000
공병훈	법과대학 법학과 01	90,000
곽성희	영어대학 영어과 74	3,360,500
곽태석	서양어대학 노어과 77	40,000
구만구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02	30,000
구자철	영어대학 영어과 73	10,081,500
권경집	중국학대학 중국어과 83	20,000
권기대	법과대학 법학과 94	30,000
권성욱	중국학대학 중국어과 79	30,000
권순환	서양어대학 스페인어 63	30,000,000
권영아	서양어대학 노어과 91	30,000
권준호	법과대학 법학과 93	90,000
권학수	중국학대학 중국어과 94	150,000
김경민	영어대학 영어과 01	90,000
김기민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터어키어과 90	30,000
김대윤	일본학대학 일본어과 99	30,000
김대호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91	60,000
김대희	법과대학 법학과 11	90,000
김미경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84	150,000
김범수	국제지역대학 러시아학과 92	30,000
김병수	국제지역대학 러시아학과 03	50,000
김병진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79	60,000
김상현	국제지역대학 러시아학과 86	30,000
김선주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74	60,000
김성근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08	1,000,000
김소현	통번역대학원 한노·과(석) 18	150,000
김수희	서양어대학 노어과 65	30,000
김승수	일본학대학 일본어과 87	90,000
김승영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86	300,000
김영진	법학전문대학원(석) 13	10,000,000
김용빈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89	30,000
김용정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인도어과 95	30,000
김용진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태국어과 89	90,000
김용현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89	60,000
김유정	서양어대학 노어과 03	30,000
김유현	법학전문대학원(석) 10	90,000
김은정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94	30,000
김은정	사범대학 한국어교육과 93	30,000
김은지	통번역대학 아랍어통번역학과 04	60,000
김이선	통번역대학원 한노·과(석) 16	30,000
김지경	법학전문대학원(석) 11	90,000
김정기	일반대학원 러시아·동유럽지역학(석) 88	30,000
김종윤	사범대학 독일어교육과 90	30,000
김종호	서양어대학 독일어과 89	11,182,088
김준영	서양어대학 노어과 93	20,000
김자숙	일반대학원 정보·기(복합과(석) 15	30,000
김지은	중국학대학 중국어과 04	30,000
김지한	서양어대학 독일어과 04	30,000
김창하	법과대학 법학과 03	30,000
나도연	법과대학 법학과 83	30,000
나상원	영어대학 영어과 76	50,000,000
나은애	통번역대학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08	30,000
노건협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99	60,000
노일련	국제학부 국제학전공 09	20,000
노지영	중국학대학 중국어과 91	30,000
류동호	법과대학 법학과 89	30,000
류재욱	일본학대학 일본어과 95	30,000
류제봉	영어대학 영어과 57	30,000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문관식	경영대학원(석) 08	90,000
문현성	법과대학 법학과 98	30,000
민희창	일본학대학 일본어과 01	30,000
박경식	법과대학 법학과 87	30,000
박남호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92	30,000
박상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93	40,000
박선종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인도어과 81	30,000
박순원	영어대학 영어과 00	60,000
박원복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79	90,000
박재호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86	30,000
박재홍	법학전문대학원(석) 14	30,000
박종관	인문대학 사학과 86	3,000,000
박지영	사범대학 프랑스어교육과 99	30,000
배석주	통번역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90	60,000
배은경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02	30,000
백승아	사범대학 한국어교육과 86	1,000,000
부종환	법과대학 법학과 71	30,000
상연진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인도어과 02	30,000
서기원	서양어대학 노어과 81	30,000
서유경	서양어대학 노어과 92	1,090,000
손세준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터어키어과 05	30,000
송대현	국제지역대학 러시아학과 86	60,000
송민형	법학전문대학원(석) 11	30,000
송배호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77	90,000
송진호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95	30,000
송철준	영어대학 영어과 74	30,000
신민하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인도어과 97	30,000
신아람	법학전문대학원(석) 11	30,000
신용균	국제지역대학원 국제지역학(박) 19	150,000
신윤경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08	30,000
신윤철	사회과학대학 광고·홍보전공 04	30,000
신인선	법과대학 법학과 07	90,000
신정현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02	20,000
신한철	일반대학원 법학(박) 10	30,000
심찬	통번역대학 태국어통번역학과 03	60,000
이상범	경상대학 국제경영학과 98	30,000
양연우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97	60,000
양해준	일본학대학 일본어과 00	20,000,000
양용식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83	150,000
엄홍길	중국학대학 중국어과 02	30,000
오성식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79	150,000
오성진	법과대학 법학과 04	30,000
오윤	법과대학 법학과 03	30,000
오정훈	중국학대학 중국어과 06	90,000
오창엽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81	30,000
우재만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71	60,000
유근혁	법학전문대학원(석) 11	90,000
유시영	서양어대학 노어과 84	30,000
유영미	사범대학 한국어교육과 82	90,000
유재형	서양어대학 노어과 96	30,000
유정은	중국학대학 중국어과 05	30,000
윤성수	통번역대학 스페인어통번역학과 84	540,000
윤성희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89	1,000,000
이동만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83	75,000
이동원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인도어과 01	30,000
이민형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아랍어과 05	1,000,000
이보훈	영어대학 영어과 86	30,000
이상람	서양어대학 독일어과 67	300,000
이상식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79	90,000
이상원	통번역대학원 한노·전공(박) 01	300,000
이석주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79	8,000,000
이성배	서양어대학 노어과 98	30,000

Donation News

HUFS Donation

2021. 12. 01. ~ 2022. 02. 28.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이수연	국제지역대학 프랑스학과 06	30,000
이승률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77	30,000
이승원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인도어과 00	30,000
이승조	서양어대학 노어과 78	30,000
이영도	통번역대학 독일어통번역학과 81	30,000
이영화	법과대학 법학과 68	30,000
이옥성	영어대학 영어과 76	60,000
이용권	서양어대학 노어과 80	30,000
이용출	일본학대학 일본어과 82	30,000
이은순	서양어대학 노어과 73	30,000
이익재	중국학대학 중국어과 79	1,000,000
이장일	법과대학 법학과 88	30,000
이재용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01	30,000
이재호	경영대학원 국제금융학(석) 04	30,000
이재홍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88	90,000
이종섭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80	30,000
이준희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86	150,000
이진희	서양어대학 노어과 76	30,000
이하나	영어대학 영어과 02	30,000
이현석	법학전문대학원(석) 11	90,000
이혜영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91	30,000
이호경	일본학대학 일본어과 91	20,000
이호윤	일본학대학 일본어과 83	30,000
이희성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89	30,000
이희원	사회과학대학 방송·영상전공 06	30,000
임동무	영어대학 영어과 61	30,000
임은숙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83	60,000
임재복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아랍어과 82	30,000
임창균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87	60,000
임효상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77	30,000
장운호	서양어대학 노어과 80	30,000
장일범	서양어대학 노어과 87	30,000
장지애	통번역대학원 한노·과(석) 16	40,000
전별	법학전문대학원(박) 15	90,000
전성철	서양어대학 이탈리아어과 76	150,000
정순자	일본학대학 일본어과 91	30,000
정소화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99	30,000
정언용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91	30,000
정연우	서양어대학 노어과 77	30,000
정영조	중국학대학 중국어과 74	150,000
정재민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81	150,000
정지훈	일본학대학 일본어과 98	30,000
정혜린	통번역대학원 한노·전공(박) 12	60,000
정휘영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98	30,000
정희웅	사범대학 한국어교육과 10	30,000
조규태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72	150,000
조기석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88	180,000
조동식	일본학대학 일본어과 69	30,000
조성욱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인도어과 87	150,000
조수연	법과대학 법학과 85	30,000
조용배	영어대학 영어과 85	30,000
조원균	서양어대학 프랑스어과 92	30,000
조재원	법과대학 법학과 01	30,000
천만석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태국어과 90	1,000,000
천부기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터어키어과 91	30,000
최경훈	일본학대학 일본어과 84	30,000
최동규	서양어대학 노어과 77	30,000
최백범	서양어대학 노어과 05	30,000
최병천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아랍어과 81	30,000
최영규	국제지역대학 러시아학과 84	30,000
최은정	영어대학 영어과 92	300,000
최장호	법과대학 법학과 06	30,000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최재선	국제지역대학 프랑스학과 06	30,000
최종태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00	500,000
최창수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태국어과 89	90,000
최태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90	90,000
최한규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68	1,000,000
최한구	경영대학 경영학과 83	90,000
추가영	서양어대학 노어과 04	30,000
하상원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74	150,000
하석근	경영대학 경영학과 95	30,000
하정수	서양어대학 프랑스어과 81	30,000
한의섭	영어대학 영어과 05	90,000
함영준	서양어대학 노어과 81	30,000
하완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78	90,000
허욱	통번역대학 스페인어통번역학과 94	30,000
홍성재	경상대학 GBT 학부 14	30,000
홍영표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아랍어과 81	150,000
홍원기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아랍어과 94	30,000
홍의표	상경대학 경제학과 00	30,000
홍현주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82	30,000
황송이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아랍어과 05	30,000
황윤정	경영대학 경영학과 04	30,000
황인자	영어대학 영어과 74	30,000
Hanafy Shima Mohamed	외대교수	60,000
가정준	외대교수	150,000
고태진	외대교수	30,000
곽새라	외대교수	240,000
곽순례	외대교수	60,000
권경애	외대교수	450,000
권기수	외대교수	90,000
권영우	외대교수	150,000
권혁만	외대교수	150,000
김경희	외대교수	450,000
김동환	외대교수	2,000,000
김민정	외대교수	60,000
김봉철	외대교수	1,270,665
김상범	외대교수	405,000
김원영	외대교수	150,000
김원호	외대교수	90,000
김유경	외대교수	542,190
김윤운	외대교수	15,475,194
김인철	외대교수	1,200,000
김정연	외대교수	30,000
김진아	외대교수	30,000
김찬완	외대교수	30,000
김태성	외대교수	30,000
김한식	외대교수	30,000
김형래	외대교수	90,000
김혜진	외대교수	180,000
노명환	외대교수	255,000
명희준	외대교수	150,000
문지희	외대교수	300,000
박경은	외대교수	300,000
박미정	외대교수	30,000
박삼미	외대교수	60,000
박중찬	외대교수	150,000
박치환	외대교수	150,000
박홍수	외대교수	8,037,597
박희호	외대교수	1,000,000
방교영	외대교수	330,000
송연석	외대교수	30,000
송준서	외대교수	30,000
신근혜	외대교수	428,574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신정아	외대교수	180,000
안인경	외대교수	90,000
여호규	외대교수	105,000
온대원	외대교수	300,000
왕석동	외대교수	60,000
유기환	외대교수	465,000
윤경원	외대교수	4,000,000
윤기현	외대교수	50,000
윤성우	외대교수	1,673,100
윤승영	외대교수	220,000
윤은경	외대교수	5,030,000
이근영	외대교수	105,000
이보화	외대교수	450,000
이승래	외대교수	60,000
이승용	외대교수	300,000
이안섭	외대교수	30,000
이재복	외대교수	900,000
이주연	외대교수	30,000
이지은	외대교수	120,000
이진아	외대교수	1,200,000
이창훈	외대교수	150,000
이준호	외대교수	30,000
이태욱	외대교수	200,000
이향	외대교수	834,000
이현환	외대교수	150,000
임근동	외대교수	30,000
임소라	외대교수	937,500
임일환	외대교수	100,000
장병익	외대교수	300,000
정은영	외대교수	60,000
정해연	외대교수	30,000
제성훈	외대교수	30,000
조화문	외대교수	250,000
최상은	외대교수	10,000,000
최영수	외대교수	150,000
최요섭	외대교수	90,000
최종찬	외대교수	300,000
한원덕	외대교수	30,000
홍성민	외대교수	300,000
홍종영	외대교수	30,000
황성우	외대교수	30,000
황재호	외대교수	60,000
황지연	외대교수	30,000
강덕수	명예교수	10,000
박화영	명예교수	1,000,000
장실	명예교수	30,000
최재철	명예교수	30,000
유정화	퇴직교원	90,000
강미리	외대직원	30,000
김석중	외대직원	60,000
김원범	외대직원	30,000
김현숙	외대직원	120,000
김혜정	외대직원	30,000
나영규	외대직원	60,000
문은영	외대직원	60,000
박식원	외대직원	90,000
신선호	외대직원	30,000
오성석	외대직원	30,000
윤병호	외대직원	330,000
정용호	외대직원	150,000
최완식	외대직원	600,000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홍순혁	외대직원	30,000
황순규	외대직원	300,000
단창균	학부모	150,000
유설자	학부모	60,000
나무라되오컴퍼니(형갈환)	기타(개인)	150,000
박문진	기타(개인)	10,000,000
백창기	기타(개인)	5,000,000
유기상	기타(개인)	3,000,000
차상석	기타(개인)	10,000,000
(재)한국외대동문장학회	동문단체	27,000,000
G-CEO 뉴욕 총원우회	동문단체	5,904,080
뉴욕동문회	동문단체	3,554,300
독일어교육과 총동문회	동문단체	4,000,000
민원의 행복	동문단체	9,500,000
외영78동기회	동문단체	3,000,000
재삼천외대동문회	동문단체	1,000,000
재직동문교수회	동문단체	3,360,000
한국외대 재직직원동문회	동문단체	655,000
행정학과 76 정우회	동문단체	10,000,000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	교내단체	482,000
글로벌캠퍼스 신우회	교내단체	2,000,000
외대비전교회	교내단체	2,000,000
외대재직직원장학회(씨앗)	교내단체	2,620,000
광주회관	외대사랑후원업소	300,000
(재)케이티그룹희망나눔재단	기타(단체)	3,960,000
(재)출판재단	기타(단체)	12,000,000
남정장학재단	기타(단체)	7,500,000
롯데장학재단	기타(단체)	45,000,000
미래에셋박현주재단	기타(단체)	28,000,000
미래의동반자재단	기타(단체)	5,360,500
미래인재육성재단	기타(단체)	5,229,500
삼성복지재단	기타(단체)	35,500,000
서울장학재단	기타(단체)	2,500,000
송화재단	기타(단체)	4,000,000
신라문화장학재단	기타(단체)	4,500,000
아산사회복지재단	기타(단체)	26,416,000
일주학술문화재단	기타(단체)	3,360,500
재단법인 김준기재단	기타(단체)	10,081,500
재단법인 문숙장학재단	기타(단체)	3,000,000
재단법인 연당장학회	기타(단체)	2,000,000
재단법인 인촌	기타(단체)	1,500,000
재단법인 해강대성장학회	기타(단체)	2,000,000
정수장학회	기타(단체)	21,516,000
허영호장학재단	기타(단체)	1,500,000
한국지도자육성재단	기타(단체)	4,360,500
해성문화재단	기타(단체)	10,081,500
현마육영재단	기타(단체)	30,030,500
효림장학재단	기타(단체)	8,000,000
(주)다우기술	기타(기업)	12,000,000
(주)대구은행	기타(기업)	1,070,000
(주)세이브	기타(기업)	6,000,000
(주)센애드	기타(기업)	8,100,000
(주)씨에스엠텍	기타(기업)	30,000
(주)에지일소다	기타(기업)	5,000,000
(주)영케미칼	기타(기업)	20,000,000
(주)오리엔탈패시픽씨푸드코리아퍼레이션	기타(기업)	2,000,000
국민은행 이문동지점	기타(기업)	5,000,000
법무법인(유한) 동인	기타(기업)	500,000
에이스관세법인	기타(기업)	1,000,000
윤앤최오토테크	기타(기업)	8,000,000

AI시대를 밝히는 글로벌 융합전문가 HUFS 글로벌캠퍼스에서 키웁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는
AI시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위해
SW 산업 현장 체험학습과 SW 전공 교육을 강화하여
미래의 핵심 인재가 될 글로벌 융합전문가를 키웁니다

Come to HUFS, Meet the World

입학안내
02-2173-2500 / <https://adm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UFS

서울캠퍼스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 02.2173.2114
글로벌캠퍼스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TEL. 031.330.4114